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지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반이민
감정이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 지 현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반이민
감정이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박지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김 지 현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감정이 투표 선택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미국 이민 쟁점에 기반을 둔 투표 선택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법 이민 문제가 유권자 본인에게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질수록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민 이슈에 대해 위협적인 감정을 품거나,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질 경우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색인종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반이민 이슈를 통해 위협감이 높아질수록, 불법 이민자에 대해 비호감을 가질수록,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내 증가하는 불법 이민집단이 미국 대중들에게 위협감과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 결과 반이민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일체감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그보다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그에 대한 감정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8
제2장 투표행태 기존연구	11
제1절 전통적 투표행태 기존연구	11
제2절 인지평가이론 기존연구	21
제3절 사회 경제적 지위 모델(Socioeconomic status)	29
제3장 미국의 반이민 태도와 이민정책	33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2008년 미국 이민 정책	36
제2절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 상황	38
제4장 연구설계 및 연구 방법론	41
제1절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42
제2절 데이터	44
제3절 분석 모형 및 변수 설명	47
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51

제6장 결론 및 정치적 함의	66
참 고 문 헌	71
부 록	79
abstract	86

표 목 차

<표 1> 변수들의 기술 통계	50
<표 2>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53
<표 3>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민주당 지지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항	55
<표 4>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유색인종 유권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항	60

그림 목 차

[그림 1]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1.1.~2016.4.30.)	5
[그림 2]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5.1.~2016.8.31.)	6
[그림 3]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9.1.~2016.11.8.)	6
[그림 4]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긴 이슈와 투표 참여에 관한 그래프	46
[그림 5] <표 2>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오즈비 그래프	54
[그림 6]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58
[그림 7]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59
[그림 8]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	62
[그림 9]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	63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을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반이민 감정’으로 설정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과 대상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미국 유권자로 설정하였으며, 이민 이슈에 따른 반이민 감정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나아가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민 이슈에 대한 개인의 감정 개념 모형을 이용하여 2016년 전미 선거 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슈에 따른 감정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검증하고 어떠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016년 당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의 유례없는 대통령 후보였다. 트럼프는 전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처럼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를 발휘할 수 없었지만, 미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1천 2백만 명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 공약을 부각하면서, 공화당 내 엘리트 저항에 맞서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하였다(Bonikowski and Bart 2019). 트럼프 후보는 강경한 반이민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반엘리트주의’, ‘불법 이민자로 인한 미국 사회의 위협’, ‘불법 이민집단으로 인한 불안함’ 등 단순하고도 공포를 조장하는 수사 어구를 사용하였다. 선거 캠페인 동안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힐러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으며¹⁾, 여론 조사에서도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한다는

결과 등을 인용하여 힐러리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했다.²⁾ 그러나 미국 여론의 예상과는 달리,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다(Lacatus and Corina 2019).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는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³⁾,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서명,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 추방 대상으로 삼는 행정명령 서명, 불법체류 추방유예 지침 폐지 등을 결정하였는데,³⁾ 이러한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국내외에서의 논란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는 2016년 선거 캠페인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였을까?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내의 반이민 정서가 특정 미국 시민 안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된 지 4년이 지난 2020년에도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를 포함한 특정 종교 단체 신도들 10명 중 8명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시행된다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등록 유권자

1) 힐러리 클린턴은 전 영부인, 뉴욕 상원의원,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 전국 무대에서 정치 활동 이력을 갖고 있으며 보편적인 인지도를 누리고 있었다. 오랜 공식 생활에서 보여준 끈기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던 2008년보다 더 나은 후보가 될 것이며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 역사를 만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처:

<https://www.latimes.com/nation/politics/politicsnow/la-pn-hillary-clinton-2016-analysis-20150410-story.html>,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2)) NPR Politics는 트럼프와 힐러리 선거 경쟁에 대한 승리를 예측하기 위해 270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및 기타(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혼혈) 등 5개 통계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보다 클린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www.npr.org/2016/06/30/483687093/the-270-project-try-to-predict-who-will-win-the-election>,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3) US: Devastating Impact of Trump's Immigration Policy Deportations Undercut Fundamental Rights .(출처:

<https://www.hr.org/news/2017/12/05/us-devastating-impact-trumps-immigration-policy>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중 82%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17%는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6년 대선 직후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유권자의 77%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16%는 클린턴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미국의 정체성을 백인 기독교 국가로 믿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단체에게 있어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그들의 정책적 선호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인 복음 단체와 같은 미국 특정 유권자들의 선호에 트럼프 불법 이민 이슈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만 그치지 않고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는 상황을 통해서 이민 이슈에 대한 반이민 감정이 미국 사회 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아울러 내년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정책은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은 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를 불법 이민정책에 있어 불안을 유발하며 국경에서 무능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현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이 미국 사회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대선 출마에서 미국-멕시코 장벽을 마무리하고 멕시코 잔류와 망명 제한을 부활시키는 등 첫 대선에서 주장했던 반이민 정책을 다시 복원 및 확대할 계획이라

4) MICHAEL LIPKA, GREGORY A. SMITH. 2020. "White evangelical approval of Trump slips, but eight-in-ten say they would vote for him." Pew Research Center. (출처 :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0/07/01/white-evangelical-approval-of-trump-slips-but-eight-in-ten-say-they-would-vote-for-him/>,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출처: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2/10/27/45-of-americans-say-u-s-should-be-a-christian-nation/>, 검색일: 2023년 11월 23일)

고 밝혔다(ABC news 2023).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남부 국경 등의 이민자 급증을 막기 위해 추방 범위를 확대하거나 800명의 현역 국방부 인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바이든이 반이민 정책인 ‘타이틀425’ 확대 방침을 밝힘으로써,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반이주민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를 받은 공화당으로부터 공격 소재 부문에서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공화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나 중도층 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측된다. 최근 6개의 스윙주(Swing state)를 대상으로 실시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New York Times, Siena College)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미시간 등 6개 주 중 5개 주에서 바이든을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측대로라면 승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⁶⁾ 이러한 예측 결과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포함해서 트럼프가 공약한 사안들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잘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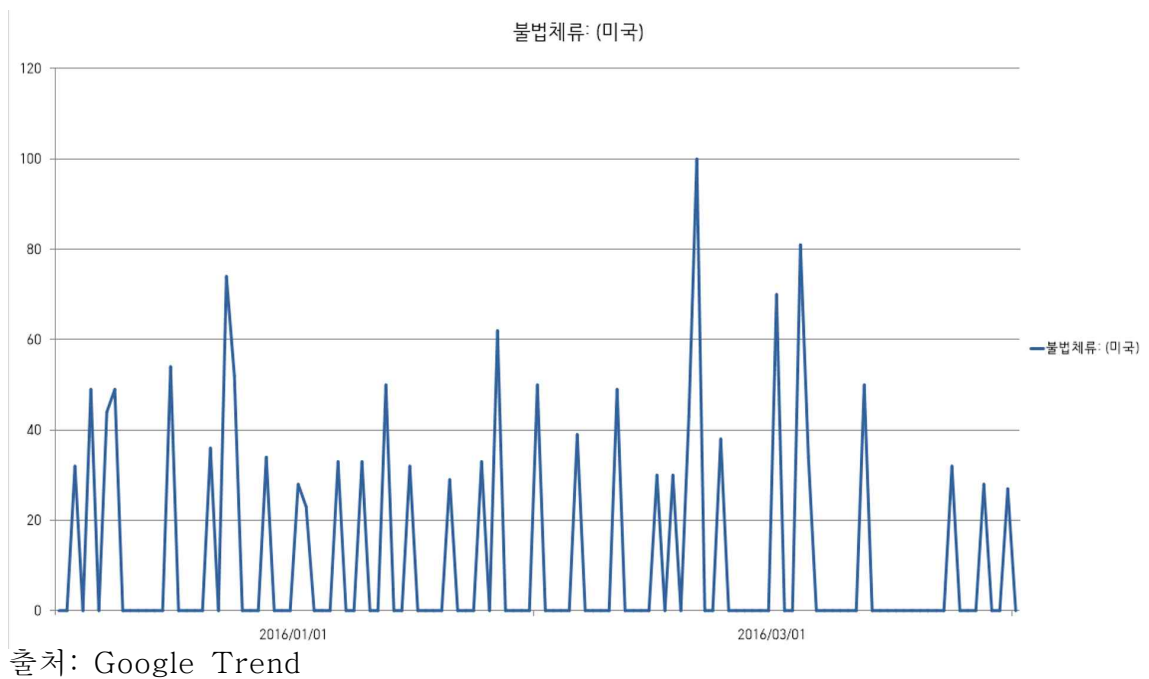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2016년 미국 선거 시기 동안 실제로 불법 이민 이슈가 대중들에게 관심이 높았는지 가늠하기 위해 구글 트렌드(Google Trend)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2016년 미국 선거에서 대중들이 이민 이슈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글 트렌드는 특정 주제가 검색된 빈도를 제공하는 하나의 측정 도구로 특정

5) 당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보건법 42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도 미국에 난민,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 기간, 보호소에서 머물 수 있었다. 이에 트럼프 전 정부는 타이틀 42 정책에 따라 이민자를 바로 멕시코로 추방했다. 이에 이민을 막으라고 막은 법이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6) Nate Cohn. 2023. “Trump Now Leads Biden – An analysis of a new set of New York Times / Siena College polls.” The New York Times. (출처: <https://www.nytimes.com/2023/11/05/briefing/trump-biden-poll.html>, 검색일: 2023년 1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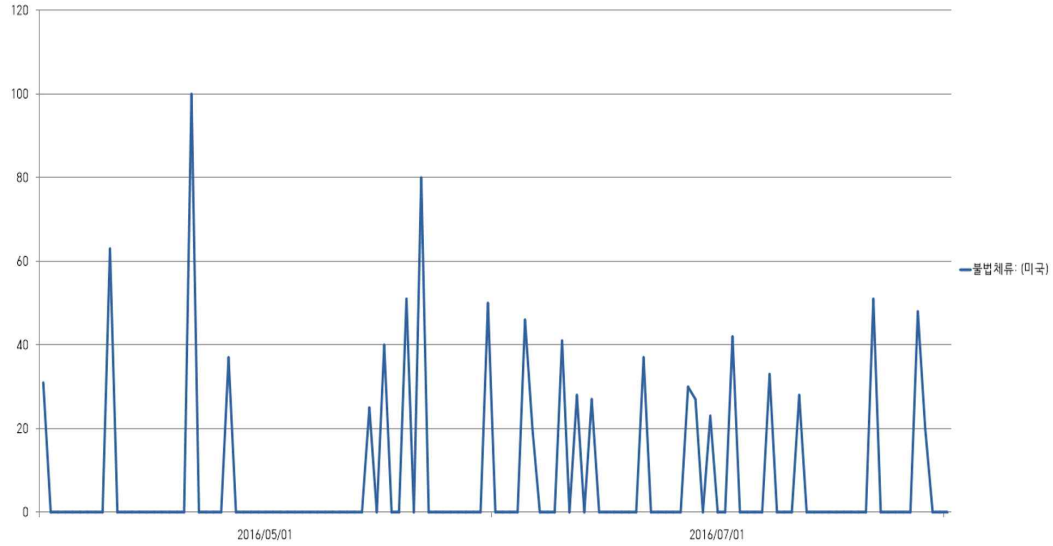
국가를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이민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값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으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고,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으로 나타나며 점수는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다. 본 연구는 구글 트렌드에서 국가는 미국으로, 시점은 3가지로 구분 지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 시기인 (1)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201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2016년 9월 1일부터 미국 선거일이었던 11월 8일까지로 설정하여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미국 대중들이 이민에 관련된 해당 검색어를 얼마나 자주 검색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그에 관한 결과를 그래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불법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1.1.~2016.4.30.)



[그림 2] ‘불법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5.1.~2016.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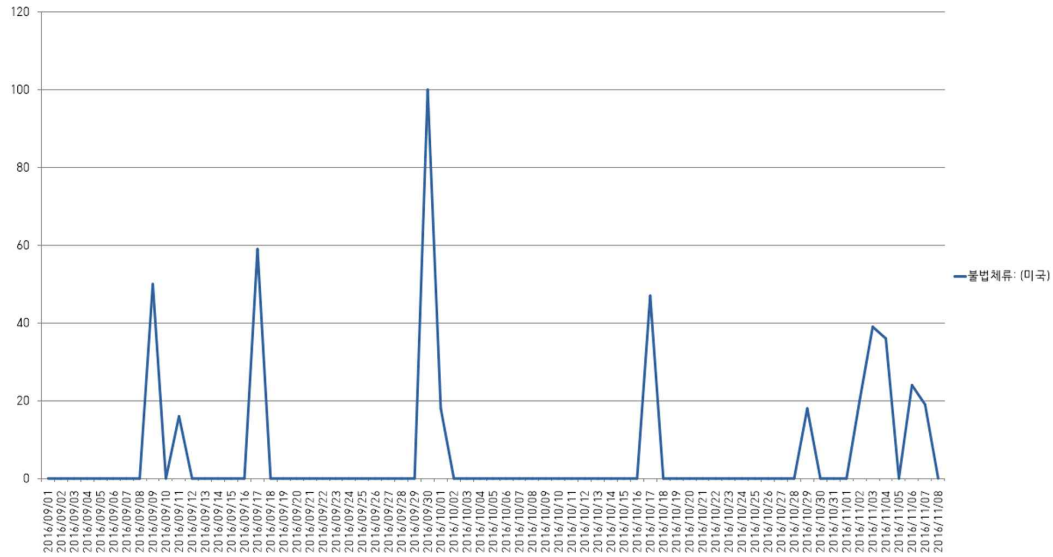
불법체류: (미국)



출처: Google Trend

[그림 3] ‘불법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9.1.~2016.11.8.)

불법체류: (미국)



출처: Google Trend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체류 대한 주제어의 빈도가 100으로 최대치 이상에 도달했던 시기가 3월(3월 21일), 5월(5월 21일), 9월(9월 30일)로 이는 미국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11월 투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트럼프의 불법 이민 논쟁에 관심을 가졌다고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트럼프의 불법 이민정책이 2016년 미국 대선 시기에 미국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2016년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미국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이민 쟁점에 관해서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유권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갖는 반감의 원인, 미국 대중들이 반이민 정서가 형성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반이민 감정이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에 대한 투표 선호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캠페인 시기에서 트럼프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 사회의 배경을 살펴보고,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트럼프를 선택하는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민 이슈에 따른 미국 유권자의 반이민 감정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였는가? 반이민 감정이 트럼프 투표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민 이슈에 대한 반이민적, 부정적 감정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반이민 감정이 투표 선택을 끌어내는 정치 참여 동력이었다면, 그러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반이민 감정과 정당일체감 둘 중 어느 요인이 투표 선택에 더 중요하게 작동되었는가? 또한, 인종과 반이민 감정 중 어느 요인이 2016년 대선 투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유권자는 이슈를 통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정책 거리에 비교하여 해당 쟁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나 후보 정당에 표를 부여하고 선거에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슈 투표는 유권자에게 후보들의 정책 입장을 인지하거나 선호를 가지게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슈 투표 개념에 주목한다.

유권자의 이슈 태도는 특정 쟁점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각각의 쟁점에 대한 중요도 선정 혹은 공감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고정 지지표는 세대 및 나이, 지역, 성별, 종교, 인종, 정당 등과 같은 사회학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정당일체감과 같은 유권자 개인의 충성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부동층이나 무당파층의 투표 선택 행태는 캠페인 시기에 주목받는 이슈나 정치적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친이민 정책 성향을 가졌던 클린턴과 반이민 정책을 강조했던 트럼프로 상반된 이민 이슈 견해 차이와 상당히 치열했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민 이슈가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미국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는 상반된 정책 차이에 따라, 이슈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혹은 여러 후보 정당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특정 감정을 가질 수 있다. 특정 이슈를 접하고 나면 유권자는 복합적으로 인지적 사고와 감정이 작용함에 따라 특정 후보 정치인이나 후보 정당, 특정 이슈에 대해서 개별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감정에 따른 특정 행동 성향이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특정 이슈에 따른 감정 모델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후보자 및 정당 선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유권자가 이민 이슈에 따른 반이민 감정을 가지는 상태에서 유권자가 장기적으로 지닌 사회학적 모델과 사회심리학적 모델을 서로 접목해 상호작용을 시킨다면, 유권자의 반이민 감정은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일체감 따라 그리고 인종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이슈 투표에 따른 유권자의 인지평가이론과 정치 심리학적 모델의 정당일체감 중에서 어느 요인이 더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인지평가이론에 기반을 둔 반이민 감정과 사회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종 중 어떠한 요인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더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전통적 투표행태 기존 연구를 전개하고, 그중 합리적 선택이론과 이슈 투표모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유권자의 감정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정치라는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정에 대한 인지평가이론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그 밖에 유권자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동력에 대해 기존에 연구되었던 자원 모델과 시민 자발성 모델을 제시하여 투표 선택 연구에 사용된 사회경제적 지위모델(Socioeconomic status)의 주요 분석 틀 및 이론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기존 이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2016년 캠페인 선거 시기부터 2024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의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강경한 불법 이민정책을 공약하고 고수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미국 사회 배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정책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었으며, 2016년 선거의 이전 정부였던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지,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가 제시하는 이민정책은 무엇이었는지, 2016년의 미국 선거 캠페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본다. 따라서 3장에서는 미국 사회에 대한 이민정책 배경을 조사하여 미국인들 내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위협인식과 미국 사회 내 형성된 반이민 감정 배경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선거 캠페인에서 강조될 수 있었던 원인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기존 이론과 미국의 이민정책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제시한다. 이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모델을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민 이슈에 대한 반이민 감정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선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반이민 감정을 가진다면, 유색인종 유권자이지만 반이민 감정을 가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주목하여 정당일체감과 인종의 조건변수를 설정한 상호분석항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즉, 2016년 미국 선거에 트럼프의 불법 이민정책이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빚발치는지,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는 트럼프의 불법 이민 이슈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이후에는 본 연구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연구목표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제2장 투표행태 기존연구

제1절 전통적 투표행태 기존연구

정치 참여와 투표행태의 전통 연구는 길고 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슈 투표모델이 2016년 미국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분석하기 전에 전통 투표 행태이론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통 투표행태 연구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 참여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 분야이다. 전통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성별, 지역, 나이, 지역, 소득 등의 요인을 분석하는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모델, 당파심에 대한 유권자의 애착심과 충성심을 주로 분석하는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모델, 의제 중요도 구분 및 인식, 쟁점 소유권 인식, 비용 대비 혜택 계산 등을 다루는 로체스터 학파의 합리적 선택모델이 있다.

첫 번째로 1940년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모델은 라자스펠트(Lazarsfeld 1948)가 구성한 사회과학 연구팀이 선거 행동 연구에 설문조사를 적용한 연구이다. 이들은 지역적, 시간적,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투표 선택의 연관성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유권자가 속한 사회집단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사회집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러한 변수들을 사회학적 이론으로 칭하고 있다. 이 모델은 유권자 개인이 종교와 사회계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⁷⁾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별, 인종, 직

7) 가족, 친구, 동료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인식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대인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정교화했다. 유권자는 소속된 대인 관계를 소속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고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 소속되었다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순응도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업, 계층, 지역 등과 같이 개인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왔던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다. 따라서 투표 결정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분석했다(Lazarsfeld 1948). 특히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은 일련의 선거 연구를 통해서 유권자의 사회적 지위, 거주지, 종교 유무 등이 사회적 변인으로 작용하고 투표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증명했다(Berelson et al. 1954).

두 번째는 1960년대의 미시간 학파 사회심리학적 모델로, 사회적 집단에서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선거 연구 동향이 옮겨졌는데 이를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으로 부른다(Campbell et al. 1960; Beck et al. 2008; Bartels 2010). 사회심리학적 모델의 접근법은 사회학적 모델 사회적 집단을 사회적 변인과 심리적인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투표 행태이론이다. 미시간 연구팀은 콜롬비아 연구팀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투표 행동을 연구했다. 조사연구센터의 대표 인물로는 캠벨(Campbell), 밀러(Miller), 스톱스(Stokes) 등으로, 이들은 미시간 자체 사회 심리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시간 학파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소속된 집단, 계층, 직업 등을 포함하여 유권자의 심리적 영향력인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심을 주요 투표 참여 원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정당일체감이 개인의 정치 참여 및 투표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는데, 당파심(Partisanship)⁸⁾은 스포츠 행사에서 당파적인 응원과 이익에 따른 제휴 혜택을 모두 염두에 두는 이중적 의도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동일시(identification)의 소속감 또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서 당파심 개념이 기원 되었다. 당파심은 자신을 스스로 규명하

8) 정당에 대한 평가는 당파적 정체성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바꾸지 않고도 정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동화시키고 정당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면서도 민주당 팀의 일원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당파심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체성의 특수성에 초점을 뒀어야 한다.

고 어떤 정당에 애착심을 느끼는지에 따라 달렸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와는 다른 의미로 정당에 느끼는 소속감, 심리적 요인⁹⁾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정당 소속감이 당파심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가져옴을 강조한다.¹⁰⁾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은행, 텔레비전, 메일,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와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정당 활동가가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었고, 제도적 구조와 캠페인 스타일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당파적 정체성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민주당원, 공화당원과 같은 당파집단은 여전히 사회적 정체성¹¹⁾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Green et al. 2004). 당파심은 유권자 개인의 정치 사회화 과정이 성인기 초반까지 형성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경기불황, 전쟁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Green et al. 2004).

이후 투표에서의 선거 연구 방법론적 주요 동향이 사회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면서 학계에서 표준으로 잡았던 분석단위가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을 설정하는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고, 미시간 학파의 등장 이후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같은 발전된 방법론적 관점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컬럼비아 학파 연구에서 채울 수 없었던 개인의 요인을 함께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개인의 이질성¹²⁾을 간과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

9)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정당의 충성도가 먼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또한, 정당에 대한 약한 소속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marginal voters) 선거결과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11)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그룹에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든다. (이를 내집단으로 칭한다) 반대로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외집단으로 인식해 자신과 분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그룹을 더 소중하고 애착심을 가지게 만드는 개념이다.

12) 중대한 상황적 사건이나 사회경제적 급변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과 같은 투표행태의 변화. 수정주의 학파는 대공황, 남북전쟁, 베트남 전쟁 등의 사건으로 유권자가 이슈와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도 받고 있다(Abramowitz and Sanders 1998; 박지영 2017).

마지막 로체스터 학파¹³⁾의 합리적 선택모델¹⁴⁾은 유권자가 정당에서 혹은 정치인이 제안한 여러 가지 공약과 대안들을 비교하여 기대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합리적 선택모델은 경제학적 접근법이라고도 불리며 유권자들 스스로가 정책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유권자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Fiorina 1981; Franklin 1992). 대표적인 연구자 중 다운스(Downs)¹⁵⁾는 유권자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갖고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다(Downs 1957). 캠벨(Campbell)은 정책요인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Campbell 1960).

정리하자면, 컴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모델은 사회집단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고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모델에서는 개인의 충성심, 애착심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고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체스터 학파의 합리적 선택모델은 정책적 쟁점이 투표 결정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모델에서는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호도와 가장 근접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이슈 투표(Issue voting)’라고 부른다. 유권자들은 향후 미래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할 수 있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과 선택지를 고려함으로써 유권자의 기대를

13) 더 넓은 흐름의 일부였던 이슈 투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투표 연구에 나타난 수정주의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4) 스톱스(Stokes 1963), 키(Key 1966), 크레이머(Kramer, 1971)의 경험적 통찰을 통합하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Key 1966)와 투표 연구의 회고적 투표(Fiorina 1981)에 대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선거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였다.

15) 다운스(Downs 1957)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에 기인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은 인간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충족시켜주거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해줄 수 있는 후보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기대하고 투표를 한다. 합리적 선택모델 주장에 따르면, 미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파악과 정보습득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에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치 지식과 후보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한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캠페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 비로소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 사회에 관한 관심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 선택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는 비판도 따른다(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Carpini and Keeter 1997).

이어서 다음 내용에서는 합리적 선택모델에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 투표 선택과 정치 참여 요인을 이슈 모델에 따른 감정으로 설정하고 분석한다. 따라서 반이민 이슈 모델을 핵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슈 투표(Issue votin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으로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합리적 선택이론 투표율 공식

합리적 선택이론은 앞서 전통 투표행태 모델에서도 설명했듯이, 유권자가 투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투표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판단되었을 때, 투표장으로 향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개인이 투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이라고 한다. 그리고 개인이 투표함으로써 함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른다. 즉, 개인이 투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기회비용과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에 대한 투표율 공식은 아래 수식과 같다.

$$R = (B \cdot P) - C$$

위 투표율 공식에서 각 알파벳(R, B, P, C)은 다음을 의미한다. R은 보상(Reward)을 의미하며, 개인이 투표장에서 투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이다. B는 이득(Benefit)을 의미하며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 혹은 정당이 선발되었을 때,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아울러 통칭한다. P는 가능성(Probability)이며, 유권자가 투표를 한 정당이 혹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는 비용(Cost)으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 유권자가 서울 시장을 투표해야 하는 당일에 해당 유권자는 부산에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유권자는 투표장인 서울로 가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 혹은 차로 이동하는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투표장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 혹은 후보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서울 투표장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지급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투표장으로 갈지 혹은 안 갈지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내용이다.

이후 라이커와 오드훅(Riker and Ordeshook 1968)은 기존의 투표율 공식에 새로운 변수인 'D'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설명하였다.

$$R = (B*P) - C + D$$

새롭게 추가된 변수 D(Doubtless)는 투표하는 행위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자 효용을 의미한다.¹⁶⁾ 그 자체로의 만족감과 정치적 효용은 유권자 개인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했다는 사실, 유권자가 지지했던 정당 혹은 후보자를 위해서 투표했다는 것 자체로부터 만족감이 형성될 수 있다. 혹은 유권자가 정치적 민주시민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는 도덕적 생각에서도 만족감이 생겨날 수 있다(Riker and Ordeshook 1968). 이전 투표율 공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인원수가 증가할수록 한 사람이 투표 결과에 미치는 확률 P값이 감소하게 됨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Downs 1957; Feddersen 2004; Riker and Ordeshook 1968). 그러나 라이커와 오드슈이 새롭게 추가시킨 ‘D’를 통해 아무리 많은 인원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 결과에 미치는 확률값 P가 미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권자가 투표하는 이유를 새로운 투표율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Riker and Ordeshook 1968).

즉, 개인이 투표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B*P’가 ‘0’에 가깝더라도), 투표함으로써 얻는 그 자체로의 만족감인 ‘D’가 투표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인 ‘C’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표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표율 공식 관점에서 본 연구는 ‘D’가 ‘C’보다 큰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6) 원문에는 Doubtless there are other satisfactions로 표기되어 있다.

2. 이슈 투표(issue voting) 모델

이슈 투표(issue voting)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 사회 및 정치적 사안에 대한 쟁점 투표를 의미한다(원성심 고영철 2017; 박경산 1993).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인지하고, 유권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 투표 행태이론만으로 투표행태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게 되어 점차 이슈 투표모델이 알려지게 되었다(Heath et al. 1985).

이슈 투표모델의 대표적 학자인 다운스(Downs 1957)의 공간 투표모델(Spatial voting models)에 따르면, 합리적인 인간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제시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유권자 자신의 기대효용 가치를 비교한 뒤,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한다.¹⁷⁾ 캠프벨 외(Campbell et al. 1960)는 유권자가 이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무엇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이슈에 대한 유권자 자신의 견해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의 특정 이슈와 자신과의 견해가 매우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슈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유권자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한편,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기에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Downs 1957; Hinich and Enelow 1984). 유권자가 이슈에 기반을 두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투표를 선택하는 과정은 정부가 유권자 선호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실제로 실천하는

17) 다운스(Downs 1957)의 합리적 모델은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는 수단으로 엄격하게 완벽한 선거가 있는 세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정부가 유권자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두 번째는 시민은 불완전하고 정보가 많이 드는 정부로부터 각각의 효용을 추정한다.

지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장승진 2013).

하지만 이슈 투표의 한계에 대해 지적인 연구들도 찾을 수 있다. 백과 그 외는 대규모 선거에서 투표하는데 드는 비용은 잠재적인 이익보다 항상 더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때 동점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Knack et al. 1998). 또한, 대부분 유권자는 미약한 정치관심도를 갖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일관된 유권자 자신의 선호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Carpini and Keeter 1997). 그리고 기존 투표행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유권자는 정당일체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와 비교를 하기보다는, 정치인 혹은 정당에 대한 이미지나 외관에 기반을 두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Campbell et al. 1960).

그러나 이슈 투표가 여전히 선거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연구도 찾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정당일체감, 유권자 개인의 성향, 후보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슈에 대한 선호(issue preferences)가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Abramowitz 1995; Page and Jones 1979; Wright and Berkman 1986). 예를 들어 아브라모비츠(Abramowitz 1995)는 1992년 미국 전국 선거 연구에서 낙태라는 특정 이슈가 경제 상황, 정당일체감, 이념 성향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사이에서 낙태 이슈가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쉐브와 슬러터(Scheve and Slaughter 2001)는 미국 유권자 대상으로 이민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당일체감과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고, 이민정책에 대한 선호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페이지와 존스(Page and Jones 1979)는 1972년과 1976년의 미국 선거에서 정책 선호도가 투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후보자의 이미지는 훨씬 적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화이트와 버크만(Wright and Berkman 1986) 역시 후보자의 정책 입장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할 2016년 전미 선거 연구(ANES) 데이터를 사용한 이슈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도 찾을 수 있었다. 사기르와 스티븐은 2012년과 2016년 사이 이민 태도를 측정하여 2016년에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Sagir and Stephen 2022). 또한, 이민 이슈에 대한 분야를 경제적 이민 이슈, 문화적 이민 이슈, 안보적 이민 이슈 등으로 구분 지어 각 분야에서 유권자 이민태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도 있었다(Sagir and Stephen 2022; Wright et al. 2019; 박지영 2018). 기존 연구를 살펴봤을 때, 이슈에 대한 태도와 정당일체감에 대한 관련성은 학자에 따라 혼재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슈 투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반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부정적 감정이 정당일체감과 결합하였을 때 유권자는 어떠한 투표 선택을 하게 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반이민 감정을 가진 유권자가 인종 특성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투표 선택을 할지도 함께 살펴본다. 더 나아가 유권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를 고려하여 투표하는 한편, 후보자와 후보 정당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이슈를 파악하여 캠페인 공약을 만드는데, 이러한 유권자의 선호에 따른 후보자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의 한 과정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제2절 인지평가이론 기존연구

위의 장에서 설명했던 이슈 투표모델을 바탕으로 이슈가 유권자의 정치 참여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설명했던 요인들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밖에도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특정 사건에 대한 위협인식 혹은 긍정인식 등과 같은 ‘감정’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Marcus and MacKuen 1993; Marcus 2000; Nail et al. 2009; Roseman et al. 1986; Valentino et al. 2011; Zajonc and Robert 1980).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슈를 접한 유권자가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인지적 측면과 아울러 감정 요인이 매개되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감정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이론을 다시 조명해보고자 한다.

감정에 대한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모델의 정당일체감과 다른 개념을 가지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로체스터 학과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존 전통 투표행태 연구에서 한계점을 가졌던 유권자의 정치 참여 현상들에 대해서 감정 개념 틀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감정 모델은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 이미지, 정당 이미지, 특정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 두려움, 희망, 자부심 등의 감정 개념이 어떻게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개념을 정치 심리학적 분석이라고 부른다(Marcus and MacKuen 2001; Basinger and Lavine 2005; Lavine 2001).

정치적 개념에서 감정이 갖는 역할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

째는 유권자가 후보 선호도에서 후보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감정이 다른 나이, 종교, 성별, 인종, 당파심, 정당일체감 등 다른 투표 선택 요인과 비교해서 개별적인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Abelson et al. 1982; Anderson and Granberg 1991). 아벨슨 외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치 후보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후보에 대한 이미지나 정치적 지식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감정이 독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내고, 캠페인에서 후보자 이미지나 정치 지식 요인보다 감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Abelson et al. 1991).

감정이 갖는 두 번째 역할은 정치인 후보의 연설이나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치적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특정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Levine 1996; Abelson and Ewing 1986). 이는 감정이 개인의 자극에 대한 무조건적 반사라는 인식을 거부하는 개념으로, 감정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지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권자들이 최소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만 감정적 단서가 형성된다(Zajonc 1982). 그리고 유권자 내면에 형성된 감정적 단서는 정치적 판단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제 GDP 하락, 실업률,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접한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Anger) 감정을 느낀다. 반면에 나라의 경제실패 원인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 시장, 국제적 원인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접하는 유권자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불안한(Fear) 감정을 느낀다. 즉, 유권자가 접한 각각의 정치적 메시지는 서로 다른 의식적인 자각과 사고적 차이를 거치며 서로 다른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치적 상황이나 후보자, 혹은 미디어에 의해서 다양한 인지적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각각의 인지적 판단으로

18)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감정의 역할은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접근으로 설명한다.

생성된 정보로 특정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감정이 개인의 고유한 성격으로 혹은 1차원적인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생성된 표현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세 번째의 감정의 역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인지적 관심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Izard 1993; Marcus and Mackuen 1993). 특정한 원인으로 감정이 발생한 이후, 감정에 의해서 유발한 자극으로부터 유권자는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거나, 회피하거나, 해당 정보를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개인이 특정 유형의 감정을 가지면, 특정 유형의 행동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감정 요인이 정당 지지와 이념 태도, 권위주의적 성향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 차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자체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여서 후보 정당과 대상에 대해 지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커스와 맥큐엔은 감정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Marcus and Mackuen 1993). 유권자가 정치 후보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면 해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정보를 찾아내거나 수집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서 자부심, 편안함 등 긍정적 감정을 가지면 정치적 참여를 더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각각의 감정이 유발하는 행동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적 감정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성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 부분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감정의 세 가지 역할을 살펴보면서, 감정이 단순히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합리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정치 참여 연구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에 설명되었던 전통 투표 행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등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그 자체의 요인으로서 유권자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으로써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영향 및 감정에 주목해서 정치 현실, 선거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후보 및 국가 간의 인식, 신념, 이미지, 태도, 지식 등의 변수들이 포착하지 못했던 정서적 감정 반응이 유도하는 정치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다. 이는 학계에서 정치 참여와 투표행태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고 평가한다.

기존에 연구되어왔던 감정에 관한 이론은 정서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특정 사물이나 사람,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해왔다. 예를 들어 정치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 혹은 정당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당신은 A 후보자에 대해 혹은 A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도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숫자로 표시해주세요.’ 라는 질문 문항인 느낌 온도계(Feeling thermometer) 설문조사 측정을 사용한다(Abelson et al. 1982).

하지만 감정은 정서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묶이기보다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정치 상황에서 느끼는 개별 감정(불안, 분노, 자부심, 희망 등)이 어떤 차이와 행동 성향을 지녔는지, 그 차이가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나 판단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음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discrete emotions)

유권자가 가지는 개별 감정들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감정의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 of discrete emotions)이라고 부른다. 인지평가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감정은 사물이나 상황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정보처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형성된 감정들은 서로 다른 행동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인지평가이론에서는 개인의 감정이 인지적 매개 없이 즉각적인 반응, 일차원적인 물리적 육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개인은 개별 감정들로 인해서 유발된 상황을 해석하고, 해석한 상황을 토대로 특정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으로 정서적¹⁹⁾ 반응의 기초는 인지적 작용에 있으며, 개인의 인지적 평가는 자신이 파악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된다(Zajonc 1980). 예를 들어, 숲속에서 곰을 만났을 때 갖는 두려움은 무조건적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곰이라는 실체를 만났다는 자각과 곰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인지행동을 거쳐서 나온 두려움이 도출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Arnold 1960). 유권자가 접한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서로 다른 의식적 자각과 사고를 거치고 개인 고유의 성격이 합쳐진 것으로, 1차원적인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생성된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서 유권자의 감정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지적 반응으로 인한 평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태도 유지, 태도 변화, 투표 선택, 정치 참여 등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인지평가이론은 상황에 대한 자각과 인지적 평가 때문에 생성된 개별 감정들이 각각 어떤 행동 성향(Action tendency)을 지녔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개별적으로 각각 형성된 감정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유지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인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인지, 새로운 무언가를 생성할 것인지, 기존의 상황을 제거할 것인지, 혹은 공격할 것인지, 현 상황을 탈출할 것인지, 또는 회피할 것인지 등과 같은 여러 행동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여러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사고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개별 감정은 서로 다른 행동 성향과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인지평가이론에서 언급된 여러 개별 감정 중에서 이

19) 따라서 정서는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민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진 유권자의 행동 성향, 정치 참여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 중에서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개별 감정을 품는 행동 성향이 있는데, 우선 분노, 화, 격노에 해당하는 분노(Anger²⁰)은 공격적인 행동 성향이 나타나는 감정이다. 개인이 특정 무언가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처럼, 분노는 목적 실현을 방해하거나 미래에 방해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롯된 감정이다. 분노를 가진 개인은 방해되는 상황이나 조건을 이전 상황으로 혹은 개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련의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화가 나면, 즉, 분노감정을 가지면, 자신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협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국가 정부가 방해의 요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분노감정으로 시민들은 거리 시위, 군중 집회, 항의 및 청원서 작성 및 공유 등의 행동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분노를 표출하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거나 위협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기관이 개인이 처한 장애물을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의지와 소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캠퍼는 불합리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심리적 및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분노감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Kemper 1993). 따라서 분노는 개인의 의견표명 의지와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추구, 정치참여 의지 행동 성향을 높이는 감정이다.

다음으로 두려움, 불안, 공포 등에 해당하는 불안함(Fear²¹)은 불확실한 외적인 위협으로 인해 생겨난 감정이다. 두려움 감정이 가지는 기본 행동 성향은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의 도피로 개인이 물리적, 심리적 인지 기반에서 위협을 느낄 때, 생성된다(Lazarus 1991). 분노는 개인이 처한 장애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화를 내고

20) 'Anger' 에서 파생되는 여러 감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라고 용어를 설정하여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21) 'Fear' 에서 파생되는 여러 감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두려움' 이라고 용어를 설정하여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행동을 추진한다. 그러나 불안함은 스스로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사건이 긴급하게 자신에게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불확실하게 보이고,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 유권자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²²⁾ 분노는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 행동 성향을 유발하지만 두려움은 캠페인 참여와는 관련이 없고²³⁾, 오히려 정치적 학습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rcus and MacKuen 1993; 이강형 2002). 왜냐하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두려움 감정을 가질 경우, 인지적 지각과정을 조직한다. 그다음, 두려움을 유발하게 시킨 불확실한 상황 및 대상을 알아보거나 해당 정보를 찾으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해당 정보를 점차 주목하기 때문이다.

즉, 감정은 인간의 태도와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자, 정치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별 감정이 발생하고 다양한 행동 성향, 행동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인물, 사물 등) 혹은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정서가 있는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참여, 투표 선택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참여의 동기와 행동 성향과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²⁴⁾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유권자의 감정에 주목하는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아란(2012)은 2017년 한국 대

22) 인지평가이론은 분노와 두려움이 유발되는 인지적 평가나 심리적 차원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감정에서 이어진 행동 성향 또한 다르다고 주장한다.

23) 반면 낙관, 자부심, 기쁨, 희망 등의 긍정적 감정은 정치 참여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부정감정 중, 두려움은 대상에 대한 실망, 불안함 등의 반응으로 개인의 행동을 억제(Behavioral inhibition)하는 특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Marcus and Mackuen 2001)

24) 후보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진 유권자는 정당지지도, 투표 참여 등 정치에 관여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불안, 분노, 공포를 느끼는 유권자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된 대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습하는 등의 정치적 학습 행동이 형성되고 감시적인 경향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결국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주의 깊고 숙고한 정치적 선택을 내려 상당히 느린 움직임을 가졌다(Marcus et al. 2000).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 직접 정치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통령선거에서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 감정과 반대 정당에 대한 부정감정 모두가 투표 선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정적 정당 감정이 투표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김연숙(2014)은 전체 유권자 중 상당수가 정당에 대해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품었고, 유권자들이 가진 부정적 감정이 투표 선택 과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유권자의 감정과 정당일체감을 접목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당시 미국 사회에서 대두되었던 반이민 이슈에 대해 유권자가 지니는 감정이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유권자의 인종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개인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기존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이민 이슈에 대한 부정감정에 주안점을 둔다. 이민 이슈를 접하고 나서, 이민집단에 대하여 비호감 감정을 가지는 것은 미국 사회의 이민 상황이 미국인에게 위협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 선택 동향을 진단해 보는 것은 정치 참여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마주한 특정 상황, 대상에 대한 감정인식을 개별 감정으로 나눠서 분리하지 않고 분노(Anger) 감정과 불안함(Fear) 감정을 하나의 부정감정으로 묶는다. 부정 감정의 정도가 일관적으로 강하거나 비일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다차원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 과정에서 특정 대상 및 상황에 대해 절대적으

로 좋아하거나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결정짓는 것은 어렵다.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기도 하며, 싫어하는 감정이 무조건 극단적으로 끝에 치우치지 않는다. 즉,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개인의 정확한 수치를 개별 감정으로 분리하여 세밀하게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부정감정으로 묶기로 한다.²⁵⁾

또한, 반이민 감정 요인이 정당일체감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리고 인종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유권자가 오랫동안 지닌 지지 정당과 인종을 조건변수로 설정한다. 반이민 감정과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반이민 감정과 유색인종에 대한 상호작용항 분석을 통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는 둘 중 어느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투표 선택을 했는지 측정한다.

제3절 사회경제적 지위모델(Socioeconomic status, SES)²⁶⁾

지금까지 기존연구에서 합리적 선택이론, 이슈 투표모델, 감정 이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와 정치 참여 영향력을 분석하기 전, 이전 연구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분석되어왔는지, 기존 이론 토대가 무엇인지 주요 논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독립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기존 이론 이외에도 무엇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이끄는가? 개인의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전에 살

25) 본 연구에서는 전미 선거 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 자료의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중, 독립변수로 사용한 감정 요인 변수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기보고 응답을 사용했기에, 내생성 문제를 가질 우려가 있다.

26) 자원 모델(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Basic Resource Model(BRM))로도 불리며, 자원은 투표 참여자의 물적 기반을 의미한다.

퍼본 이론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번 제3절에서는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여러 요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모델(Socioeconomic status, SES)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관심도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의 동인 중 하나이다. 개인의 직장 경험, 개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척도로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요건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념이다(Brady et al. 1995). 즉, 개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울핑거와 로젠스톤은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는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사회적 의무감이 높아짐으로써 투표 참여와 정치 참여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를 연구한 버바와 그의 동료들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요인에는 (1) 시민의 역량(Capacity)과 (2) 동기부여(Motivation)가 있다고 제시하였다(Verba et al. 1995). 첫 번째로 시민의 역량이란 개인 자신이 정치적, 사회적 명분을 위해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을 의미하며, 해당 자원에는 시간과 돈 등이 있다. 시민의 역량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교육수준²⁷⁾, 직업, 소득수준 등에 의

27) 교육수준이 가장 대표적인 변수로 교육수준이 개인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시민에게 지속해서 교육하는 목적 중 하나는 개인에게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민주시민의 의무 중 하나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투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강화해주고 시민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을 통해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얻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이 얼마나 유권자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 등이 비슷한지, 유권자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한 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구

해 반영된다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 요인인 동기부여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욕구로 다음의 예시들이 있다. 정치 상황 및 사회 이슈의 관심, 정치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가치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도덕적 시민이라는 판단, 시민 의무의 이행, 또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습득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시민의 역량과 동기부여를 가지지 못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시민의 역량 관점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하여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할 시간이 없거나, 정치 및 정당 후원금 기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기부를 하기엔 개인 상황이 여유가 없는 경우,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게 된다. 두 번째 시민의 동기부여 관점에서는 정치관심도, 정치 지식수준, 정치 효능감과 같은 참여자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낮거나, 정치 혹은 사회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자가 나라 시스템에 일조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 및 가치관이 강할수록,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학계에서는 정치 참여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치 참여 방식을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해왔으며, 최근 투표행태 연구에서도 분석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나이, 교육수준, 정치관심도, 정당일체감 등과 같은 물질(Material), 인지적(Cognitive) 자원 변수만을 가지고 다양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치 참여 행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기존 정치 참여 자원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속성을

분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 혹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정보 획득과 습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정치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교육수준 요인이 유권자 개인이 투표 여부, 정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실시되는 선거, 여러 국가에서의 선거 캠페인 상황에 대입해보면 효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 참여에 대한 공식, 설명은 매 선거 변화와 차이가 빈번히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무당파, 양면적 감정을 가진 유권자들이 어느 특정 선거에서는 갑자기 동원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어느 상황에서는 갑자기 소극적인 정치 참여 행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적은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선거 캠페인에서는 길거리 시위에 참여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는 등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즉, 실제 선거 캠페인에서 매번 다양한 유권자들이 행하는 정치 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자원 모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영향 중에서 본 연구는 이민 이슈 모델에 따른 감정이 투표 선택, 정치 참여에 미치는 현상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관심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정치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민 이슈에 따른 반이민 감정 모델 변수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투표했는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장 미국의 반이민 태도와 이민정책

제2장의 기존연구 설명을 통해 정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살펴 보았다. 그 중,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할 요인은 이슈 투표모델에 대한 감정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실제 2016년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이민 태도를 분석한다. 미국 이민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반이민 물결이 흐른 미국 사회 배경이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는 어떻게 가속화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했던 2016년의 미국 선거 캠페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공약했던 반이민 정책이 무엇인지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부터 미국 사회에서 지속해서 언급되는 논의 주제인 이민정책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3장에서는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배경과 미국 사회에 형성된 반이민 논쟁을 정리한다. 이어서 2008년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바마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과 태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내 불법 이민 문제는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의 발표 연설로 처음 시작된 이슈가 아니다. 미국에서의 이민정책은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다양한 정치 제도, 이주민들의 미국 정착 및 식민주의 역사, 국제적 맥락과 함께 변화되어왔다(Scheve and Slaughter 2001). 이민정책 연구자인 힝(Hing)은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는데, 첫째는 미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이주자의 망명 신청이나, 다문화 가족의 재결합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것이 미국의 표

면적 이미지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앵글로 색슨계 백인 기독교인만이 진정한 미국인이며, 북서유럽인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Hing 2012). 이러한 이민정책에 대한 미국의 선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종적 정체성, 신규 이민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졌다(Scheve et al. 2001).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이민정책 논의는 크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차원의 친이민 정책과 제한주의적 또는 징벌적 성격을 띠는 반이민 정책의 양상으로 나타났다(Vickie et al. 2016).

비키 외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가 나타난 원인을 경제적 요인과 민족적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으로는 2007년 12월에 시작되어 2009년에 끝난 경제 침체가 미국 전역에 상당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가져와 제한주의적, 징벌적 성격의 반이민 정책 결정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Vickie et al. 2016). 박지영(2018)은 미국 사회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된 원인 중의 하나로 경제적 배경을 꼽았는데,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했지만, 이후에 일자리를 놓고 값싼 임금의 불법 이민자와 경쟁을 벌이는 노동구조로 변화되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냈고, 미국인의 경제적 좌절감이 사회의 외부 집단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촘스키(Chomsky 2014, 2018)는 미국인들이 처한 취업 시장 위기,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등 미국 사회의 전반적 경제적 위기 원인을 불법 이민자로 돌려, 이들을 미국 경제의 직접적 문제 원인으로 치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반이민 정서는 더욱 확산하여 미국인들을 더욱 보수화시키고, 배타적 이민정책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Nail et al 2009; Stephan and Stephan 2000).

한편, 경제적 위협 이외에도 반이민 정서가 형성되고 반이민 정책이 시

행된 다른 배경 요인으로 안보적 배경이 직접적 원인으로 설정되어 미국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의료, 안보, 건강 등 다른 영역 위기가 함께 연결되면서 불법 이민 논쟁이 격렬해졌다고 설명한다(Chomsky 2014, 2018). 특히 9.11 테러²⁸⁾가 발생하면서, 불법 이민 쟁점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주목 대상이 되었고, 미국은 자국의 안보 정책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연진 2012). 하트만과 그 외(Hartman et al. 2014)는 반이민 정서가 강화되고 불법 이민정책을 선호하게 된 원인을 인종적 요인으로 설정하여, 2010년 실시된 조사 실험을 통해서 이민자가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일 때 미국 정체성의 상징을 거부하거나 범죄에 훨씬 더 큰 공격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을 밝혀냈다. 또한, 인종 차이에서 비롯된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적 반감이 반이민 정서와 반이민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으로 형성된 반이민 정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안보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미국인에게 인식 및 각인되었다(허정기 2017).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포감을 더욱 조성시켰고, 미국 사회 내 불안 원인을 이민자로 돌려 ‘불법 이민자’로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이민자를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스템을 강화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 및 부정적 분위기가 2008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에서 어떻게 더 불어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8)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 WTC) 및 펜타곤(Pentagon) 등에 대한 비행기 납치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의 살상을 가져온 테러 사건이다.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 국토안보부 창설,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조치들로 안보 위협과 맞서 싸우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이 되었고 이민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제와 이민자들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조사가 촉구되었다(Hernandez 2008).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공약이 어떻게 이민 이슈를 자극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 불안한 감정을 더욱 구체화 시켰는지,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반이민 결집세력까지도 형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1절 오바마 행정부의 2008년 미국 이민정책

2016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캠페인이 더욱 선전될 수 있던 이유는 이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추진했던 드림 법안(Dream Act)은 오바마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히스패닉, 소수 집단 유권자에 대한 답례로 추진되었다. 드림 법안(Dream Act)은 미등록 이민자(undocumented migrants) 2세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는 불법 이민자들 2세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후, 이중 범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김정옥 2013). 오바마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들을 구체²⁹⁾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는데, 오바마는 “깨져버린 이민체계를 고치는 것”이 이민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였고,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두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2012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발표를, 2014년에는 기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하고 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를 추가하였다. DACA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동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상태에서 2012년에 추방 위기에 놓였던 약 15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한 적이

29) 김현숙 2016.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출처: <https://www.voakorea.com/a/3168267.html>, 검색일: 2023년 10월 30일)

있다. 그밖에도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미국 신원조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임시적인 거주를 보장하거나 초청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는 등 친이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 및 개혁은 약 4백만 명에서 최대 5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시켰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도 따르게 되었고, 이민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내국인들의 불안함도 함께 증가시켰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서 반이민 정서가 형성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 이론 중 하나인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보자면, 미국에서 내집단에 해당하는 미국 내국인들은 외집단에 해당하는 이민자의 인원수가 증가해 미국인 내 위기의식이 생성되었을 것이다(박지영 2018). 이민자의 생활 영역 확대, 노동시장에서 이민자 지위 상승 등 여러 가지 우려로 미국 내집단 중 백인 계층은 백인의 영역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증대되었을 것이다(Nail et al. 2009).

미국인들의 타 인종에 대한 부정적 감정, 타 인종이 미국인의 영역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이민집단에 의한 미국 사회 우려 등 이민 이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 공약이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결집을 형성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제2절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 상황

트럼프는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을 제시하여 개방적 이민정책을 공약한 민주당 후보 클린턴과는 달리 폐쇄적 이민정책을 선언하였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중, 미국-멕시코 간의 거대 장벽 국경 설치 공약은 폐쇄적 이민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다. 미국-멕시코 거대 장벽 건설 공약의 배경은 미국 사회에 절대다수에 해당하고 있는 멕시코인에 대해 불편함과 위기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같이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주자가 이동하는 국경 횡단 기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불법 이주자, 이민자, 체류자에 대한 정책 마련을 긴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츨스키(Chomsky)는 멕시코 이민집단을 불법성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1965년 이전에는 멕시코인들이 ‘비 이민자(Nonimmigrant)’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Chomsky 2014, 2018). 미국에서 경제적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던 멕시코인들은 미국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미국으로 이동하고, 일이 끝나면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는 일용 체류자(Sojourner)로 본 것이다(권은혜 2016).

미국과 멕시코 간의 불법 이민에 대한 논쟁은 1920년대부터 1965년 사이 실시된 국경 통제 과정에서 갖춰지기 시작했다. 추방 및 불법 체류자 사면과 관련된 시행에서 멕시코인은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배제 정책을 제정 및 수행하며 멕시코인의 합법적 이민 규모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멕시코인은 까다로운 이민 심사, 지불해야 하는 인두세 상승, 강화된 이민정책 등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넘나들었고 합법적 이민 절차

를 회피하게 되었다.

이후 멕시코 불법 이민 노동자의 월경을 방지하고, 미국의 노동력, 경제력 회복을 위해 ‘브라세로 프로그램(The bracero program)’, 1924년 국적 차등 상한선 이민정책을 철폐한 ‘1965년 이민법’, ‘1986년 이민개혁법’ 시행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 이민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국경 통제 강화 노력,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 처벌 조항 신설 등의 이어진 이민정책의 여러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서류 없는 이민자를 막는 데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미국 사회 내에서 미국인들이 반이민 정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점차 국경 통제 및 추방 등 이민제한 정책으로 흘러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추방만으로는 불법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히려 오바마의 이민정책과 주장은 미국인들에게 불법 이민이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이민적 사회 분위기는 미국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지속적인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화 방향을 가진 이민정책보다는, 미국-멕시코 국경 방위 통제를 강화하는 폐쇄적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서게 했을 것이다.

이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선언을 중심으로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개방적 이민정책을 반박했다. 그리고 미국-멕시코의 국경 접경 지역에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을 세우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설정했다. 미국 대중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반이민적 정서와 함께 2016년 대선 선거 캠페인 시기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개방적 이민정책을 반박하고, 트럼프의 계획을 지지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민이 확산 및 보편화 되면서, 다양한 이민자들이 미국으

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커다란 인구학적 변화가 나타났고, 미국인들은 스스로 미국 사회의 주류층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존 미국의 주류층이었던 백인 계층은 점차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민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 인식과 미국 사회 분위기로 이민에 대한 비호감 감정이 형성되고 트럼프 캠페인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여러 학자는 주장했다(Major et al. 2016).

또한, 트럼프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한 채, 보수적인 백인 계층, 불법 이민집단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치적 메시지와 매력을 적절하게 어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이민자뿐만 아니라 타 인종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반이민 정책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들이 마음 깊숙이 지니고 있던 타 인종, 이민집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시켰고, 백인-민족주의 및 토착 주의 세력 등을 등장시킨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론

제3장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위협인식과 부정적 감정이 형성된 배경,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서 반이민 이슈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 배경에서 유권자들이 정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택하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공한다. 또한, 실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또한 던질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이전에 살펴본 기존연구와 미국 사회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반이민 이슈, 불법 외국인의 존재,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공약 등으로 형성된 이민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였다. 선거 캠페인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자가 어필한 불법 이민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 존재임을 강조한 것과 미국-멕시코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피력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정치 메시지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하는데, 어떠한 정치 참여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제4장에서는 위의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명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 자료를 소개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가 무엇인지, 어떤 통계 모형을 사용했는지 등 연구설계방법을 소개한다.

제1절 연구문제 및 연구 가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에서 반이민 이슈와 반이민 부정감정이 미국 유권자 정치 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연구문제 총 2가지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이민 이슈에 따른 반이민 감정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 트럼프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2>

이민 이슈에 대한 반이민 감정이 정당일체감 사이, 그리고 인종 사이 상호작용 효과를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선거에서 후보 정치인과 정당은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유권자가 관심 갖고있는 쟁점 및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 그리고 후보자 자신이 피력하고 있는 쟁점을 유권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강조시키는 한편,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두고 여러 후보의 정책 입장을 비교하여, 유권자 개인이 설정한 가치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거나, 자신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진영의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슈 투표모델과 감정 모델에 기반을 두어 미국 유권자들이 이민 이슈에 대한 태도와 불법 이민자에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협감, 비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매개한 하나의 변수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정 및 우려가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공화당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2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가설 2. 불법 이민자에게 비호감 감정을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위 두 가지 가설에서 2가지 조건변수를 포함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 4가지 가설을 구성하였다. 권혁남(1997)은 투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선거상황, 투표행위에서도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 각각의 요인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변수로만 존재하기보다는, 서로가 매우 상호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권혁남(1997)이 제시한 연구 방향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다른 변수들을 상호작용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유권자들이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모델에 기반을 두어 사회집단에서 비롯된 요인과 이슈 감정 태도 요인 중 어느 요인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정치 참여에 반영되었는지 분석하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 이슈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거나,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 부정감정을 가진다면, 민주당 지지자일지라도 정당일체감을 따르기보다는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주장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회 내에서 백인을 제외한 흑인(Black/African american), 히스패닉(Hispanic), 아시안(Asian) 등과 같은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이나 다른 인종에 우호적인 성향이 있을지라도 반이민 감정이 커질

수록 트럼프를 투표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자, 유색인종 유권자를 조건변수로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결과를 파악하고자 총 4가지의 가설들을 도출했으며, 가설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가설 3. 민주당 지지자일지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느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가설 4. 민주당 지지자일지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를 느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가설 5. 유색인종 유권자일지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느낄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가설 6. 유색인종 유권자일지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질수록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제2절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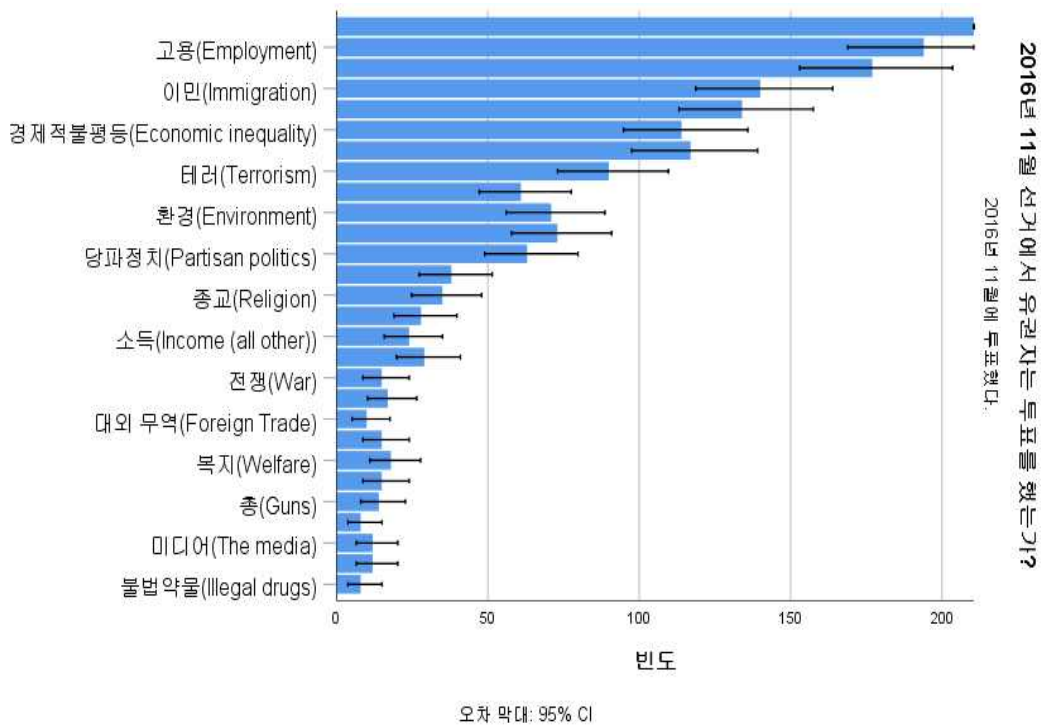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전미 선거 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의 2016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어떤 유권자가 지지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016년 전미 선거 연구 시계열 데이터 자료에는 미국 적격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참여, 투표 행동, 여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미디어 노출, 인지 스타일, 가치 및 성향 등과 같이 정치적 영역과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은 9월 초에 시작되어 선거 이후, 2017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2016년 선거 전 미국 유권자에게 인터뷰를 시행했으며, 11월 9일부터 선거 직후 재인터뷰를 이어 진행하였다. 즉, 본 2016년 전미 선거 연구자료는 선거 후 조사(Post-election survey)를 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이다. 데이터

세트는 표본 정보, 대면 및 웹 스크리닝 인터뷰, 접촉 기록 및 접촉 시도 기록을 포함하여 총 3,600개 이상의 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4271명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미 선거 연구 데이터(ANES)는 설문조사 자료이므로 응답자의 자기 문항 측정을 이용한 자료로 구성하기에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항의 일관성 문제, 응답의 불안정성과 결측치 문제 등 연구 방법론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투표 현상에서 검증하고 싶은 요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 참여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유권자에 대한 감정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의의를 가진다. 아울러 투표행태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측정 노력이 1948년 시계열 데이터 연구부터 축적되어왔고, 같은 기관에서 지속적인 연구자료를 수집해왔다는 점에서 이전 자료와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며 같은 질문 문항을 두고 비교 및 사후 측정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미 선거 연구(ANES)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선거에 대한 미국 유권자 인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2016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미 선거 연구(ANES)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다양한 이슈들이 대표적으로 투표 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그래프를 제작하였다. 가로축(X축)에는 2016년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를 세로축(Y축)에는 [그림 4]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2016년 11월 선거에 유권자는 투표를 했는가?’로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의 그래프는 아래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그래프에 사용한 x축의 변수는 경제, 정치인, 경제적 불평등, 예산, 이민, 건강, 고용, 테러, 빈곤, 환경, 국방, 당파 정치, 교육, 종교, 범죄, 소득, 정부, 전쟁, 정치적 부패, 대외 무역, 세금, 복지, 성차별 및

젠더, 총, 낙태, 미디어, 사회 보장, 불법 약물로 총 81개 변수 중에서 28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변수는 제외하였다.

[그림 4]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긴 이슈와 투표 참여에 관한 그래프



[그림 4]에서는 경제, 고용, 건강, 이민, 예산, 경제적 불평등 등 순으로 유권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2016년 11월 본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해당 그래프는 95% 신뢰수준에서 분석되었다. 물론 더 자세한 분석을 제5장에서 진행하겠지만, 두 그래프 모두 이민 이슈가 미국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미 선거 연구(ANES) 자료의 2016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민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2016년 미국 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검증한다.

제3절 분석 모형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적격 응답자에 한해서 어느 대통령을 뽑았는지에 대한 문항을 코딩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으면 '1', 클린턴을 투표했으면 '0' 으로 코딩한 가변수(dummy variable)의 형태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통계 모형에서 사용된 핵심 독립변수는 총 2가지로 불법 이민 이슈에서 비롯되어 유권자의 인지 사고하는 복합적 부정감정 요인으로 매개된 변수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 느끼는 위협 중에서 안보적 위협에 해당하는 변수인 '불법 이민집단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범죄율을 증가하여 위협을 느끼는가?'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1부터 5까지의 순서형 척도로 '매우 위협을 느낀다' 라는 응답부터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는 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응답을 1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고, 2는 '동의하지 않는다' 로, 3은 '보통이다' 로, 4는 '동의한다' 로, 그리고 5는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라고 변형 코딩하였다. 그리고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비호감도 요인을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 이민에 느낌 온도계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느낌 온도계를 0부터 100까지 구성된 호감도를 비호감도로 코딩 전환하였다. 즉, 0에서 100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느낌이 낮아지도록, 호감도가 낮아지도록 변형하였다.

독립변수를 제외하여 투표 선택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2장 기존 연구에서 논의했던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당일체감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의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성별은 성별 변수에서 여성만을 가변수로 변형 코딩하였다. 유색인종은 백인 인종이 아닌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안, 기타 소수인종 선택 문항들을 각각 더미 변수로 변형한 다음 하나의 유색인종 변수로 통합시켰다. 트럼프가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발언한 인종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 속에는 다양한 인종주의적, 여성 혐오적인 함의가 담겨있기에 유색인종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연령은 1을 '10대' 로, 2는 '20대' 로, 3은 '30대' , 4는 '40대' 로, 5는 '50대' , 6은 '60대 그리고 그 이상' 순서형 척도로 재코딩하였다. 이념 성향은 '매우 진보' 부터 '매우 보수' 까지로 순서형 척도로 재코딩하였다. 민주당 지지자는 가변수 변형 코딩하였고, 공화당 지지자 또한 같은 정당일체감 문항에서 가변수 변형 코딩하였다. 정치관심도는 1은 '매우 낮음' , 2는 '낮음' , 3은 '보통' , 4는 '높음' , 그리고 5는 '매우 높음' 으로 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소득 범위를 4개 그룹으로 지정하여 1은 '\$5,000부터 \$22,499' 로, 2는 '\$22,500부터 \$49,999' 로, 3은 '\$50,000부터 \$89,999' 로, 4는 '\$90,000부터 \$250,000' 또는 그 이상으로 코딩 변형하였다.

현 경제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이민 이슈를 주요 독립변수를 사용했으나 그 밖의 다른 이슈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 이슈 중 현 경제 평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현 경제 평가 변수는 1부터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은 '현재 경제가 매우 안 좋다.' 이고, 2는 '현 경제가 좋지 않다' , 3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다' 로, 4

는 ‘현 경제가 좋다’ 로, 그리고 5는 ‘현재 경제가 매우 좋다.’ 고 설정하였다. 유권자의 권위주의적 성향³⁰⁾은 1부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매우 중요하지 않다’ 이고, 2는 ‘중요하다’ 로, 3은 ‘보통이다’ 로, 4는 ‘중요하다’ 로, 그리고 5는 ‘매우 중요하다’ 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모형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투표 선택한 유권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0’ 과 ‘1’ 로 구성한 이분 변수(Dichotomous)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표 1>로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투표 참여 및 트럼프 후보 선택

= 부정감정(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 +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
+ 현 경제 평가 + 민주당 지지자 + 공화당 지지자 + 이념 성향 + 여성 + 유색인종 + 연령 + 정치관심도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유권자의 권위주의적 성향

30) 안보에 대한 위협 혹은 사회에 대한 공포의식이 커질 경우,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나 강한 어조를 가진 지도자를 강력한 스트롱맨(strongman)으로 여겨 지지하게 된다(Hetherington and Suhay 2011). 따라서 권위주의 성향에 대한 변수를 구성하였고 ‘강한 의견과 리더십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2016년 대선 트럼프 투표 (트럼프 선택(1), 클린턴 선택 (0)으로 코딩 변형)	2468	0.48	0.50	0	1
	독립변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	3614	2.67	1.21	1	5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	3580	58.55	27.28	0	100
통제변수	현 경제 평가	4257	0.81	0.98	1	5
	민주당 지지자	2099	0.44	0.50	0	1
	공화당 지지자	2099	0.32	0.47	0	1
	이념 성향 (진보 ~ 보수)	3303	4.18	1.60	1	7
	여성	4229	0.53	0.50	0	1
	유색인종	4208	0.20	0.40	0	1
	연령	4149	4.31	1.53	1	6
	교육수준 (낮음 ~ 높음)	4226	2.09	0.47	1	3
	소득수준 (낮음 ~ 높음)	4068	2.63	1.11	1	4
	정치관심도 (낮음 ~ 높음)	4270	3.49	1.10	1	5
유권자의 권위주의적 성향	3623	3.19	1.18	1	5	

* 자료: 전미 선거 연구(ANES) 2016년 시계열 데이터

아울러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유권자의 비호감도 감정과 불법 이민 이슈에 대한 안보적 위협감정에 대한 2가지 독립변수에서 각각 민주당 지지자 변수와 유색인종 변수를 조건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일 경우, 유색인종 유권자의 경우, 불법 이민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 비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어떤 투표 성향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 경험적 분석결과

제5장에서는 앞서 제4장에서 연구문제 2가지를 토대로 연구모형 설계 및 변수 구성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연구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통계 모형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2>는 2016년 대선 기간 중 미국 내 대두된 이민 이슈로 인한 유권자의 인식과 감정이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모두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분석된 모델이다. <표 2>의 전체모형은 가설에서 제시한 2가지 독립변수와 사회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통제 요인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모형 1은 불법 이민자로 인한 유권자의 위협감과 관련된 변수만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높게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이민자로 인한 위협감에 대한 변수의 계수는 유의미하며 방향은 양(+)의 방향을 띄고 있었다.

모형 2는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비호감도의 변수만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값이며,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유권자일수록 트럼프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1과 같이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으며, 계수의 방향은 양(+)의 방향을 띄고 있었다. 모형 1과 2를 통해서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로 인해 미국 사회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위협감을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유권자일수록,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1과 2가 검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불법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와 위기의식,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트럼프 후보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인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인식 과정을 거쳐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지지하거나, 불법 이민집단을 위협의 무리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현 경제 평가에서 현재의 경제가 과거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할수록,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이념 성향이 보수 성향일수록,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일수록 트럼프를 투표 선택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표 2>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슈가 유권자에게 여러 사고를 거쳐 나타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비호감도는 트럼프 선택에 유의미한 변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오즈비(Odds ratio) 그래프인 [그림 4]를 통해 잘 나타난다. [그림 4]에서의 변수 모양의 가로 수평선 넓이는 모아진 결과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변수의 수평선이 ‘효과 없음’에 해당하는 세로줄을 가로지르는 경우, 해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빨간색은 해당 변수의 통계 계수가 양(+)의 방향을 띄고 있음을 의미하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변수는 계수가 음(-)의 방향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에서 설정한 전체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민_위협감’ (불법 이민에 대한 위협감)과 ‘이민_비호감’ (불법 이민에 대한 비호감도) 변수는 오즈비(Odds ratio) 그래프의 세로줄을 가로지르지 않고 있기에 해당 두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독립변수 변수를 제외하고도 이념 성향, 공화당 지지자, 현 경제 평가, 유색인종, 민주당 지지자가 세로줄을 가로지르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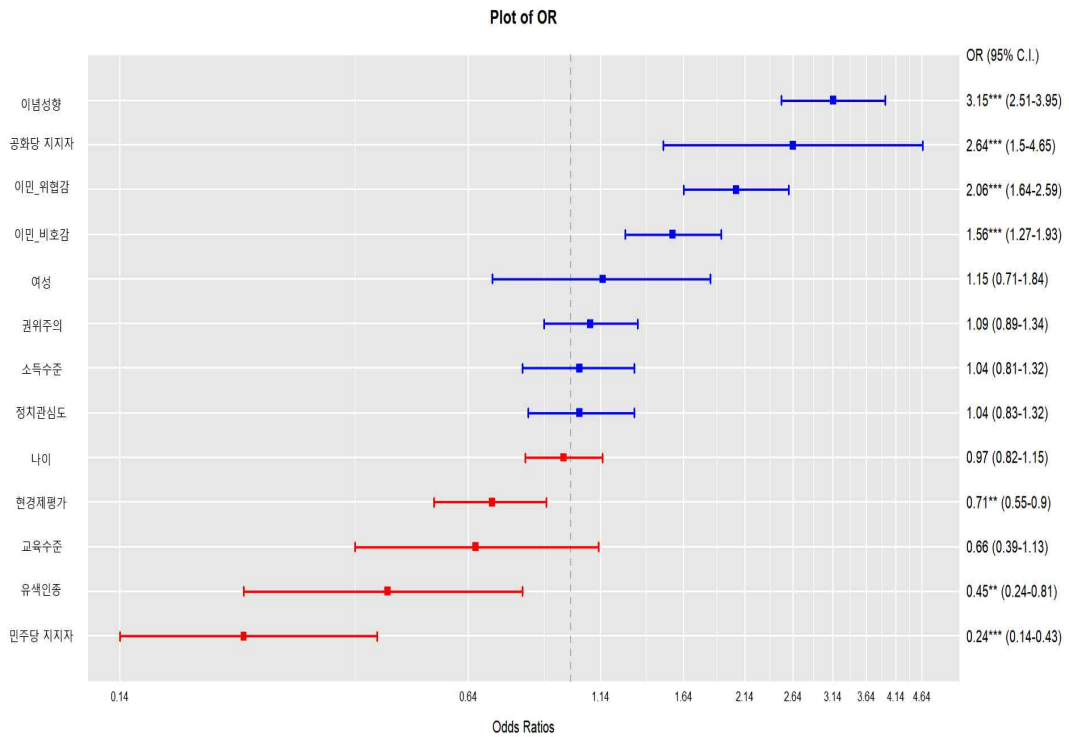
모형	모형1	모형2	전체모형
종속변수	트럼프 후보 투표 선택 (트럼프 투표(1), 클린턴 투표(0))		
현 경제 평가	-0.414*** (0.124)	-0.419*** (0.122)	-0.349*** (0.127)
민주당 지지자	-1.399*** (0.285)	-1.231*** (0.272)	-1.409*** (0.292)
공화당 지지자	1.069*** (0.283)	1.106*** (0.279)	0.971*** (0.289)
이념 성향	1.178*** (0.113)	1.187*** (0.109)	1.146*** (0.116)
여성	0.270 (0.236)	-0.054 (0.229)	0.137 (0.241)
유색인종	-0.935*** (0.299)	-1.031*** (0.296)	-0.807*** (0.307)
나이	-0.016 (0.085)	-0.042 (0.083)	-0.032 (0.087)
교육수준	-0.455* (0.263)	-0.496* (0.254)	-0.409 (0.270)
소득수준	0.088 (0.120)	-0.082 (0.116)	0.034 (0.123)
정치관심도	0.068 (0.116)	-0.034 (0.113)	0.043 (0.118)
권위주의 성향	0.085 (0.102)	0.121 (0.100)	0.090 (0.105)
불법 이민에 대한 위협감	0.833*** (0.110)		0.724*** (0.116)
불법 이민에 대한 비호감도		0.614***	0.448***

		(0.100)	(0.106)
상수항	-5.656***	-4.553***	-6.755***
	(1.133)	(1.058)	(1.207)
N	1,082	1,082	1,082
Log Likelihood	-259.285	-271.799	-250.224

주: 종속변수는 트럼프에 대한 투표 여부로 트럼프를 1로 클린턴을 0으로 코딩하였다. 모형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안의 표시된 숫자는 계수 값(B), 괄호 안은 표준오차(S.E.)이다.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그림 5] <표 2>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오즈비 그래프



<표 3>과 <표 4>는 <표 2>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3>에는 민주당 지지자 조건변수를, <표 4>에는 유색인종 조건변수를 추가했다. 즉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불법 이민 이슈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비호감도를 느끼는 유권자가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면,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해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유색인종 유권자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표 3>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민주당 지지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항

모형	모형1	모형2	전체모형
종속변수	트럼프 후보 투표 선택 (트럼프 투표(1), 클린턴 투표(0))		
현 경제 평가	-0.466*** (0.120)	-0.515*** (0.119)	-0.457*** (0.122)
민주당 지지자	-3.984*** (0.644)	-3.425*** (0.700)	-5.193*** (0.942)
공화당 지지자	1.288*** (0.264)	1.279*** (0.267)	1.280*** (0.265)
이념 성향	1.166*** (0.106)	1.221*** (0.106)	1.187*** (0.108)
여성	0.214 (0.224)	0.091 (0.222)	0.175 (0.227)
유색인종	-1.194*** (0.287)	-1.199*** (0.290)	-1.201*** (0.293)
연령	-0.014 (0.080)	-0.055 (0.081)	-0.056 (0.082)

교육수준	-0.573* (0.248)	-0.517* (0.248)	-0.493* (0.252)
소득수준	-0.004 (0.115)	-0.041 (0.114)	-0.007 (0.117)
정치관심도	0.013 (0.109)	0.005 (0.110)	0.024 (0.111)
권위주의 성향	0.120 (0.096)	0.130 (0.097)	0.112 (0.098)
위협감 * 민주당 지지자	0.978*** (0.188)		0.840*** (0.199)
비호감 * 민주당 지지자		0.623*** (0.175)	0.444* (0.197)
상수항	-2.623** (0.969)	-2.478* (0.962)	-2.710** (0.981)
N	1,090	1,082	1,082
Log Likelihood	-259.003	-271.794	-249.879

주: 종속변수는 트럼프에 대한 투표 여부로 트럼프를 1로 클린턴을 0으로 코딩하였다. 모형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안의 표시된 숫자는 계수 값(B), 괄호 안은 표준오차(S.E.)이다.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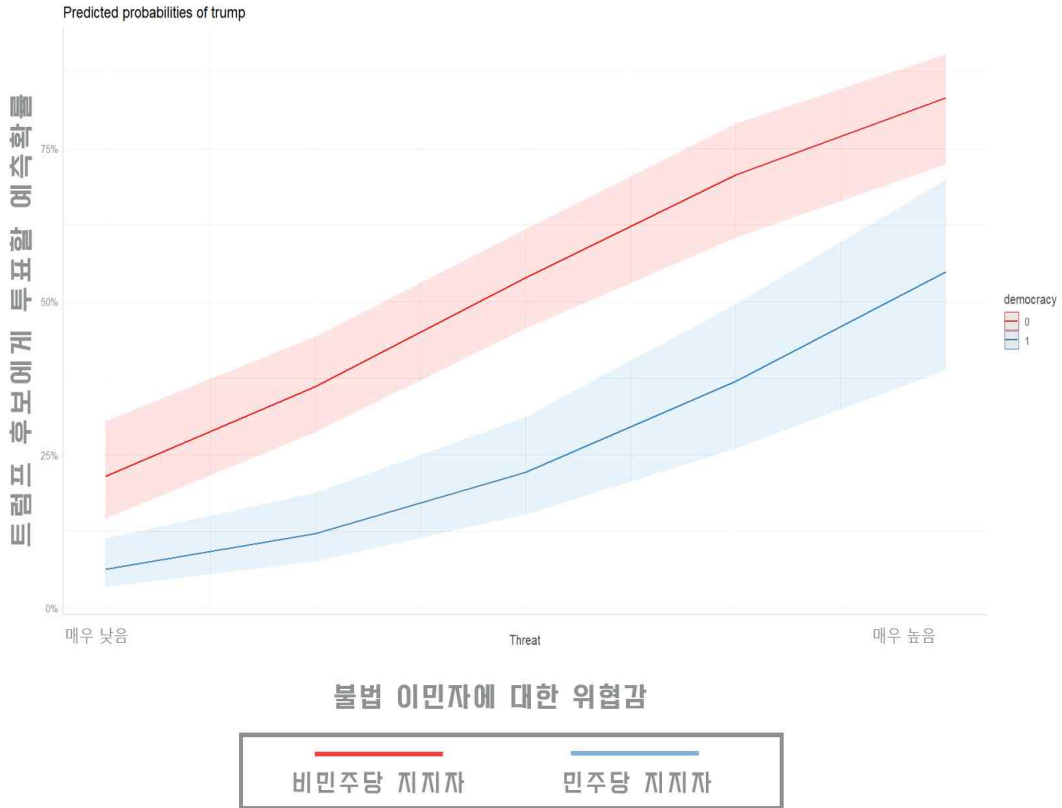
우선 <표 3>의 상호작용 항은 2가지로 첫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로 둘째, 불법 이민자에 대해 비호감도를 느끼는 민주당 지지자로 구성하였다. <표 4>의 상호작용 항 또한 2가지로 첫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가진 유색인종 유권자로 둘째, 불법 이민자에 대해 비호감도를 느끼는 유색인종 유권자로 구성하였다. <표 3>과 <표 4>의 모형 1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의 상호작용을 모형 2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항목이다.

우선 <표 3>의 모형 1과 2는 민주당 지지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 감정 또는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질 때 투표 선택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3과 4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로 인해 위협감을 느낄수록 트럼프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가설 3과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에게 비호감을 가질수록 트럼프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가설 4가 모두 확인되었다.

민주당 지지자와 불법 이민에 따른 위협인식,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와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비호감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은 모두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민주당의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가 미국 사회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할수록, 그리고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질수록, 투표 선택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ies) 그래프인 [그림 6]과 [그림 7]를 통해 잘 나타난다.

[그림 6]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우선 [그림 6]의 그래프는 모형 3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 변화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와 비민주당 지지자가 각각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예측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의 결과를 볼 때, 비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불법 이민자로 인한 위협인식이 커질수록 트럼프를 선택할 확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민주당 지지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2.62%였던 반면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이 극도로 높은 경우에는 55.19%로 52.57%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가 민주당의

정당일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위협인식을 느낄 때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강경하고 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다음으로, [그림 7]의 그래프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민주당 지지자와 비민주당 지지자 모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혀 없으면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1.27%였던 반면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45.24%로 43.94%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 6>과 같이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자이더라도 반이민 이슈에 따른 다른 인종 및 외부 집단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감정을 느낄수록 선거 캠페인 동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약속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비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유의미한 예측값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질수록 비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유의미한 예측확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민자로 인해 야기된 반이민 감정이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떠나 유권자에게 당면한 중요 쟁점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유색인종 유권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 항

모형	모형1	모형2	전체모형
종속변수	트럼프 후보 투표 선택 (트럼프 투표(1), 클린턴 투표(0))		
현 경제 평가	-0.507*** (0.119)	-0.522*** (0.119)	-0.505*** (0.120)
민주당 지지자	-1.313*** (0.264)	-1.264*** (0.265)	-1.316*** (0.268)
공화당 지지자	1.205*** (0.272)	1.145*** (0.273)	1.132*** (0.274)
이념 성향	1.228*** (0.105)	1.272*** (0.108)	1.267*** (0.108)
여성	0.121 (0.221)	0.030 (0.224)	0.029 (0.225)
유색인종	-3.613***	-3.952***	-4.939***

	(0.674)	(0.793)	(0.948)
연령	0.017 (0.079)	-0.043 (0.081)	-0.025 (0.081)
교육수준	-0.568* (0.247)	-0.525* (0.249)	-0.510* (0.251)
소득수준	-0.022 (0.113)	-0.042 (0.115)	-0.031 (0.115)
정치관심도	-0.052 (0.108)	-0.038 (0.110)	-0.050 (0.110)
권위주의 성향	0.112 (0.096)	0.109 (0.098)	0.094 (0.098)
위협감 * 유색인종	0.950*** (0.227)		0.639* (0.252)
비호감 * 유색인종		0.808*** (0.214)	0.620** (0.231)
상수항	-2.489* (0.969)	-2.381* (0.970)	-2.444* (0.983)
N	1,090	1,082	1,082
Log Likelihood	-259.284	-271.304	-249.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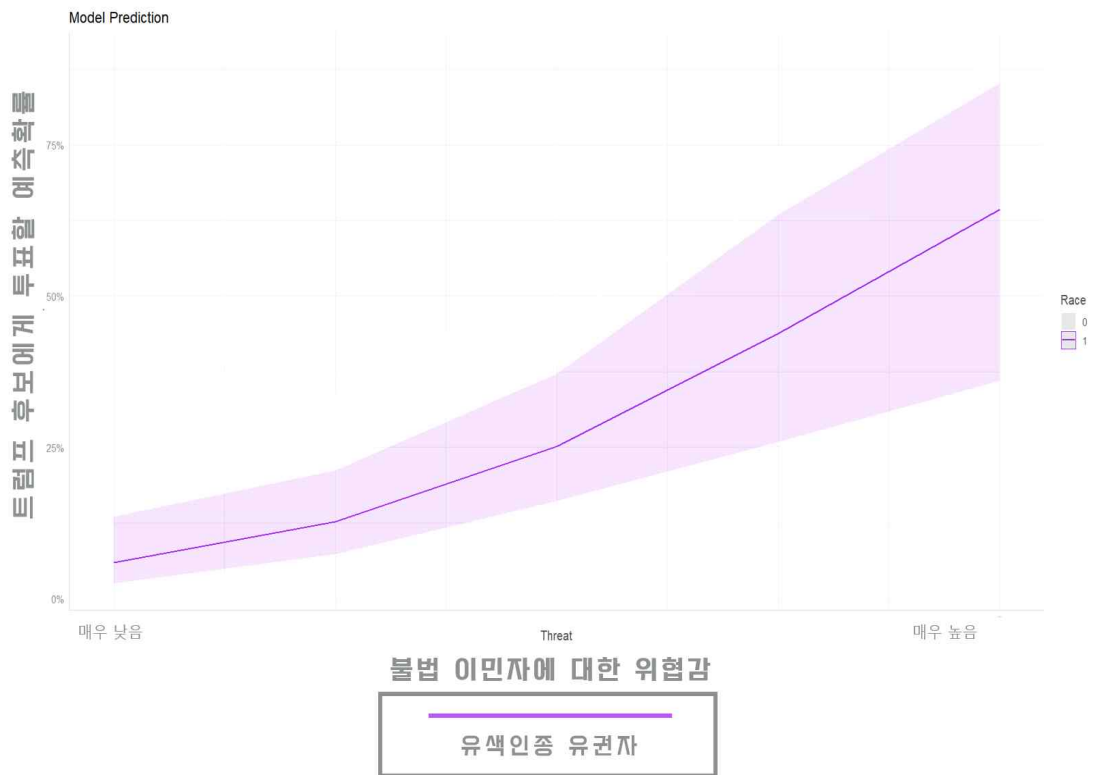
주: 종속변수는 트럼프에 대한 투표 여부로 트럼프를 1로 클린턴을 0으로 코딩하였다. 모형은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였다. 표 안의 표시된 숫자는 계수 값(B), 괄호 안은 표준오차(S.E.)이다.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다음으로 <표 4>의 모형 1과 2는 유색인종 유권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 또는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비호감을 가질 때 투표 선택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과 2의 결과에 따르면, 유색인종 유권자로 백인보다 좀

더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지닌 사회 배경이 있더라도 불법 이민자로 인해 위협감을 느낄수록 트럼프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가설 5와 불법 이민자에게 비호감을 느낄수록 트럼프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가설 6이 모두 확인되었다. 유색인종 유권자와 불법 이민에 따른 위협감, 그리고 유색인종 유권자와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비호감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은 모두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예측확률 그래프인 [그림 8]과 [그림 9]를 통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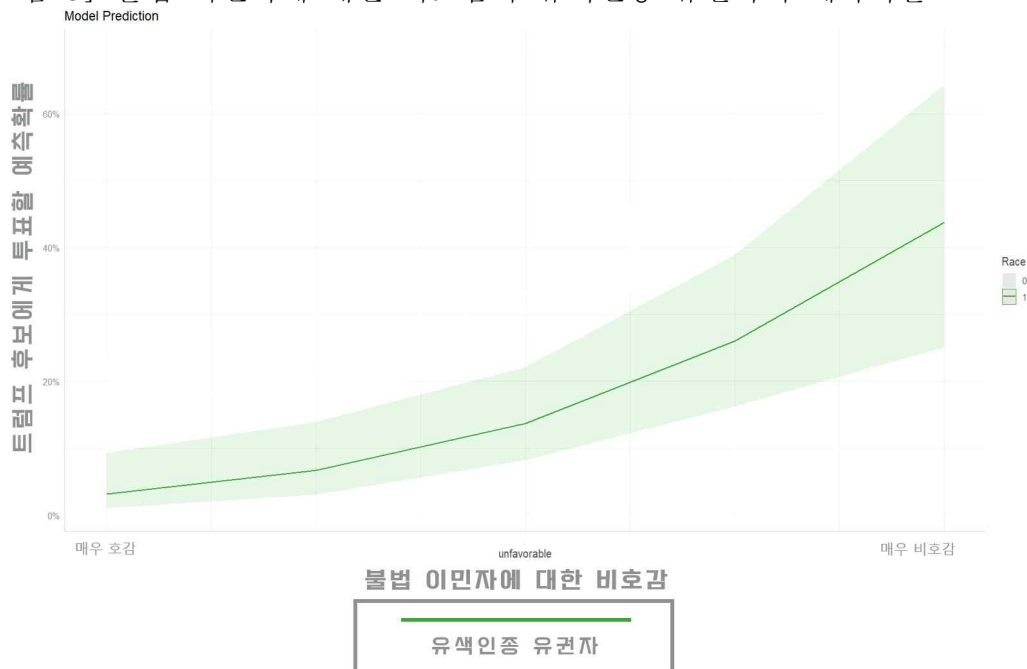
[그림 8]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우선 [그림 8]의 그래프는 모형 1의 결과를 토대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 변화에 따라 유색인종 유권자(1)와 백인 유권자(0)가 각각 트럼

프 후보를 선택할 예측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유색인종 유권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결과를 보기 위해 유색인종 유권자에 대한 그래프만을 분석하였다. [그림 8]의 결과를 볼 때, 백인 유권자와 유색인종 유권자 모두 불법 이민자로 인한 위협인식이 커질수록 트럼프를 선택할 확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색인종 유권자에 주목하자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경우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2.64%였던 반면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이 극도로 높은 경우에는 64.32%로 61.68%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가 백인과 비교하면 소수 집단이나 타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위협인식을 느끼면 자신이 인종에 대한 배경을 고려하여 선택하기보다는 강경하고 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과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다음으로, [그림 9]의 그래프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이민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크게 느낄수록 백인 유권자와 유색인종 유권자 모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그래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에서는 유색인종 유권자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혀 없으면 트럼프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2.32%였던 반면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42.48%로 40.16%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8]과 같이 유권자의 배경이 상대적으로 백인보다 다른 인종, 타 집단에서 우호적인 사회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반이민 이슈에 따른 타 인종 및 외부 집단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감정을 느낄수록 선거 캠페인 동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약속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부분은 <표 3>과 <표 4> 모두 민주당 지지자 단독 변수였을 때, 그리고 유색인종 유권자 변수였을 때는 음(-)의 계수였지만, 불법 이민에 대한 위협감과 비호감도의 변수를 상호작용 효과를 적용하였을 때, 계수 방향은 모두 양(+)의 계수로 기존 정당일체감과 인구통계학적 통제 계수의 방향이 반대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의 모형 1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변수에서는 계수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3.984' 였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 변수와 민주당 지지자의 상호작용 항은 계수의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0.978' 로 3.006만큼 커졌다. <표 3>의 모형 2에서 민주당 지지자 변수에서는 계수의 방향이 모형1과 같이 음(-)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3.425' 였지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 변수와 민주당 지지자의 상호작용 항은 계수의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0.623' 으로 2.802만큼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서도 모형 1에서 유색인종 유권자의 변수에서 계수의 방향은 <표 3>에서의 민주당 지지자처럼 음(-)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3.613' 이었으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상호

작용 항의 계수 방향은 양(+)의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계수 값은 ‘0.950’으로 2.663만큼 수가 커졌다. 그리고 모형 2에서 유색인종 유권자 변수에서 계수의 방향은 음(-)의 방향으로 ‘-3.952’ 였으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상호작용을 실행했을 경우, 계수의 방향은 양(+)의 방향으로 계수 값은 ‘0.808’로 3.144만큼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일지라도 유색인종 유권자일지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비호감도가 투표 참여 및 트럼프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당일체감과 인종 여부보다 특정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감정이 더 중요한 선택 요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 내면에는 불법 이민에 대한 두려움 및 부정적 감정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 공약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매료되어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쟁점, 그리고 쟁점에 대해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거친 감정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 사회학적 요인인 사회집단 여부를 보다도 중요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 결론 및 정치적 함의

이번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 관해 주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치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2016년 미국 선거를 분석한 결과가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현 한국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민 이슈를 참고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불법체류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타 인종 등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될 예정인 내년 미국 선거에는 반이민 이슈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본연구에서는 반이민 이슈에 대한 반이민 부정감정을 중점으로 분석한 2016년 미국 선거를 연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며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를 끝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6년 11월 8일, 미국에서 치러진 제45대 대통령선거는 클린턴이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승리하여 여론이 예측하지 못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27명이고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304명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인종차별,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국내외 논란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위협인식을 느낄수록,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비호감도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수록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인구변동을 겪으면서 미국 백인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 위협감과 사회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 시기에 소수 집단 및 타 인종에 대한 친 이민적 정책으로 백인들의 반이민 정서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집단에 대한 이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강력한 반이민 공약으로 자극한 것이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위협인식, 불법 이민 노동자가 미국 사회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제적 우려 등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불안함(anxiety) 또는 분노(anger)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국내적 상황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강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비호감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 특정 쟁점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정당일체감보다 그리고 인종 특성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왜 트럼프가 캠페인에서 전략적으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는 포괄적 이민정책을 시행하였던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위협이라는 반이민 정서를 확산시킴으로써, 자신의 핵심지지 계층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이슈에 대해 민감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까지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트럼프가 강경하게 내세운 반이민 정책은 미국 사회 내 유권자들에게 반이민 정서의 확산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는 다양한 이주민과 민족을 수용한 이민자

들의 국가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민집단, 소수 집단, 혹은 타 인종의 등장 및 확산으로 미국인들의 정체성 위기, 범죄 혹은 테러에 대한 불안감, 안보에 대한 위기감, 미국 실업률 상승 등과 같은 경제적 불안감 등과 같은 요인들이 내재하여 있다고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안보 위협이 외부 집단 및 타 인종으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의구심 등 미국 사회 내에 외부 집단에 대한 반감 및 위협인식이 형성시켰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유권자들 내에 자리하고 있는 공포, 분노, 반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이용하여 트럼프는 2024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강경한 반이민 쟁점을 더욱 강조하고, 반이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펼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후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반이주민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나 '3B(Build Back Better)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 투자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전략이 미국 우선주의와 관련한 더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제조업 리쇼어링을 시작으로 바이든이 친 이주민적 정책으로 각색시키긴커녕, 이전 트럼프 정부의 잔재를 이어 하는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를 따라가는 바이든의 이민정책은 공화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는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측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트럼프의 반이민 캠페인과 정책은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두드러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연구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투표 선택한 원인 중 하나가 반이민 감정이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고 2024년 트럼프의 캠페인 전략도 제한적 이민정책을 강조하며 미국 대중들에게 또 다른 강력한 반이민 감정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직접적인 이민법이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다문화

결혼, 외국 노동자 수용 등 다양한 인종을 수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부 집단에 대해 우려와 반 정서가 미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투표행태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분석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참고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함의를 다른 사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이민 이슈에 따른 반이민 감정인 부정적 감정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후보자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끌어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이민 쟁점에 대한 미국인들의 설문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험적 검증 역시 2016년 ANE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사용한 검증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함의를 다른 사례에 쉽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년도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례에 적용 가능한 이론 및 사례를 고안함으로써 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전한 민주주의를 육성하려면 무엇이 개인의 정치적 행동 참여를 예측하고 방해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 주요 이론으로 사용한 부정적인 감정은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불쾌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기도 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미국인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이 클수록 투표 선택과 정치 참여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이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쉽게 다른 사례에서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으로

는 부정감정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투표 선택 요인으로 발견된 만큼, 앞으로도 여러 연구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태도와 행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적 대상에 관한 감정 연구와 감정적 사고 과정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감정의 정치 참여 영향력이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보편적으로 투표장에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국가 간 혹은 시대 간 비교 후속연구를 통해 감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반대하고 비판하는 부정적 투표 참여가 반드시 숙련된 정치 참여 형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 없이 무조건 투표하는 유권자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가진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올바른 정치 참여를 할 동기와 비판적 역량을 가졌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에 관해 후속연구에서는 올바른 투표 참여가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그에 관한 분석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감정 요인에 관한 심층적 연구와 함께 다양한 요인 변수 간의 관계성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규명해 나간다면, 학계에서의 정치 이론화와 연구 작업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연구논문

- 권은혜. 2016. 근대 미국의 “불법 이민” 형성과 합법화의 대안 사이에
서: 1920 년대 이후 멕시코 이민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14, 82-102.
- 권혁남. 1997. 한국 언론과 선거 보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현실 논리
(Vol. 535). 나남.
- 김성연, 김준석, 길정아. 2013. 한국 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
가?: 정책 선호, 정책 인식, 그리고 정책투표. 한국정치학회보,
47(1), 167-183.
- 김연숙. 2014. 긍정과 부정의 정치심리학: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정
치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8(2), 5-27.
- 김연진. 2012. 9/11 은 전환점이었는가?: 9/11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
국의 이민 정책. 미국사연구, 35, 235-268.
- 김정욱. 2013. 오바마 정부의 이민 개혁안. HOMO MIGRANS, 8, 85-88.
- 박경산. 1996. 조기숙 저,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서울: 한
울, 1996). 한국정치학회보, 30(3), 469-472.
- 박지영. 2017. Homo Civicus vs. Homo Politicus: Why Some
People Vote But Not Others. 미래정치연구, 7(1), 61-85.
- 박지영. 2018. 대중의 위협인식이 트럼프 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지지
에 미친 영향: 문화적 · 안보적 · 경제적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한
국정치학회보, 52(5), 217-242.
- 15(3), 49-71.

- 원성심, 고영철. 2017.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정당, 후보자, 이슈, 미디어, 유권자 속성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4), 49-83.
- 이강형. 2002. 유권자의 정치후보에 대한 감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5), 73-104.
- 이강형. 2013.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정치 효능감과 정서적 반응의 역할: 분노(anger)와 두려움(fear)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9(2), 137-167.
- 李元揆. 1993. 쟁점투표 (Issue Voting) 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영국의 포클랜드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1), 245-267.
- 장승진. 2013. 경제민주화와 제18대 대선: 쟁점 투표 (Issue Voting) 와 정치지식 (Political Knowledge). 한국정당학회보, 12(1), 87-112.
- 허정기. 2017. 아비바 촘스키 저, 백미연 옮김,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 (전략과문화, 2008). HOMO MIGRANS, 16, 97-102.
- 황아란.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긍정적·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8(4), 133-159.
-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4), 619.
- Abramowitz, A. I. 1995. It's abortion, stupid: Policy vot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57(1), 176-186.
- Anderson, E., & Granberg, D. 1991. Types of affective evaluators in recent US presidential elections. *Polity*, 24(1), 147-155.

-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 Basinger, S. J., Lavine, H. 2005. Ambivalence, information, and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2), 169–184.
- Bartels, L. M. 2010. The study of electoral behavior.
- Berelson, B. R., Lazarsfeld, P. F., McPhee, W. N. 1986.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nikowski, B. 2019. Trump's populism: The mobilization of nationalist cleavages and the future of US democracy. *When democracy trumps populism: European and Latin America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110–131.
- Butler, David, and Donald Stokes. 1969. *Political Change in Britain*. New York: St. Martin's.
- Brady, H. E., Verba, S., Schlozman, K. L.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Brownstein, R. 2016. Trump's rhetoric of white nostalgia. *The Atlantic*, 2.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Chomsky, A. 2014.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eacon Press.
- Chomsky, A. 2018. *"They take our jobs!": and 20 other myths about immigration*. Beacon Press.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7.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2), 135–150.
- Fiorina, M.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o Title).
- Franklin, C. H. 1992. Measurement and the dynamics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 297–309.
- Green, D. P., Palmquist, B., Schickler, E. 2004.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Yale University Press.
- Hartman, T. K., Newman, B. J., & Scott Bell, C. (2014). Decoding prejudice toward Hispanics: Group cues and public reactions to threatening immigrant behavior. *Political Behavior*, 36, 143–163.
- Hetherington, M., & Suhay, E. 2011. Authoritarianism, threat, and Americans' support for the war on terr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546–560.
- Hernández, D. M. 2008. Pursuant to deportation: Latinos and immigrant detention. *Latino Studies*, 6(1–2), 35–63.
- Hing, B. O. 2012. *Defining America: through immigration policy*. Temple University Press.
- Hinich, Melvin J., and James Enelow.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zard, C. E. 1993. Four systems for emotion activati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100(1), 68.
- Knack, S., Kropf, M. E. 1998. For shame! The effect of community cooperative context on the probability of voting. *Political psychology*, 19(3), 585–599.
- Lacatus, C. 2019. Populism and the 2016 American election: Evidence from official press releases and Twitter.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2(2), 223–228.
- Lavine, H. 2001.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ambivalence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15–929.
- Lazarsfeld, P. 1948.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 Levine, R. 1996. Foreign bank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Harmonization versus competition*, 224.
- Marcus, G. E., & MacKuen, M. B. 1993. Anxiety, enthusiasm, and the vote: The emotional underpinnings of learning and involvement during presidential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72–685.
- Marcus, G. E., Neuman, W. R., & MacKuen, M. 2000. *Affective intelligence and political judg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cus, George E., and Michael B. MacKuen. 2001. "Emotions and politics: The dynamic functions of emotionality. "
- Nail, P. R., McGregor, I., Drinkwater, A. E., Steele, G. M., & Thompson, A. W. 2009. Threat causes liberals to think like conservativ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901–907.

- Page, B. I., & Jones, C. C.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4), 1071–1089.
- Riker, W. H., Ordeshook, P. C.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2.
- Roseman, I., Abelson, R. P., & Ewing, M. F. 1986. Emotion and political cognition: Emotional appeals in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cognition*, 279–294.
- Scheve, K. F., & Slaughter, M. J.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tephan, Cookie White, and Walter G. Stephan. 2000. "The measurement of racial and ethnic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5: 541–552.
- Valentino, N. A., Brader, T., Groenendyk, E. W., Gregorowicz, K., & Hutchings, V. L. 2011. Election night' s alright for fighting: The role of emotion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3(1), 156–170.
-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Yale University Press.
- Wright, G. C., & Berkman, M. B. 1986. Candidates and policy in United States Senat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567–588.
- Wright, Joshua D., and Victoria M. Esses. 2019. "It' s security, stupid! Voters' perceptions of immigrants as a security risk predicted support for Donald Trump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9.1: 36-49.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

Zajonc, R. B. 1982. Altruism, envy, competitiveness, and the common good. In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pp. 417-436). Academic Press.

2. 인터넷 자료

김현숙 2016.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https://www.voakorea.com/a/3168267.html>

Asma Khalid. 2016. The 270 Project: Try To Predict Who Will Win The Election.

<https://www.npr.org/2016/06/30/483687093/the-270-project-try-to-predict-who-will-win-the-election>

Human Rights Watch. 2017. US: Devastating Impact of Trump's Immigration Policy Deportations Undercut Fundamental Rights.

<https://www.hrw.org/news/2017/12/05/us-devastating-impact-trumps-immigration-policy>

MARK Z. BARABAK. 2015. Analysis: Hillary Clinton will be a commanding front-runner facing high expectations.

<https://www.latimes.com/nation/politics/politicsnow/la-pn-hillary-clinton-2016-analysis-20150410-story.html>

MICHAEL LIPKA, GREGORY A. SMITH. 2020. "White evangelical approval of Trump slips, but eight-in-ten say they would vote for him."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0/07/01/white-evangelical-approval-of-trump-slips-but-eight-in-ten-say-they-would-vote-for-him/>

Nate Cohn. 2023. "Trump Now Leads Biden – An analysis of a new set of New York Times / Siena College poll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11/05/briefing/trump-biden-poll.html>

Quinn Owen. 2023. "Migrant crisis explained: What's behind the border surge." abc News.

<https://abcnews.go.com/Politics/migrant-crisis-explained-border-surge/story?id=103364219>

Pew Research Center. 2018. "An examination of the 2016 electorate, based on validated voters."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8/08/09/an-examination-of-the-2016-electorate-based-on-validated-voters/#religious-affiliation-and-attendance>

Pew Research Center. 2022. 45% of Americans Say U.S. Should Be a 'Christian Nation' .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2/10/27/45-of-americans-say-u-s-should-be-a-christian-nation/>

Tal Axelrod. 2023. "Here's where the 2024 presidential candidates stand on immigration." abc News.

<https://abcnews.go.com/Politics/2024-presidential-candidates-stand-immigration/story?id=103313097>

부 록

1. 설문조사 문항 원본

변수 이름	설명	
공화당 후보 트럼프 선택	문항	V162034a (For whom did R vote for President)
	질문	Who did you vote for?
	응답	(1) Hillary Clinton, (2) Donald Trump, (3) Gary Johnson, (4) Jill Steiin, (5) Other candidate SPECIFY
	코딩	다음과 같이 변형. (1) Donald Trump, (0) Hillary Clinton
이민자 범죄율 유발	문항	V162270 (Immigrants increase crime rates in the U.S.)
	질문	(Do you [agree strongly, agree somewhat, neither agree nor disagree, disagree somewhat, or disagree strongly /disagree strongly, disagree somewhat, neither agree nor disagree, agree somewhat or agree strongly]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mmigrants increase crime rates in the United States.
	응답	(1) Agree strongly, (2) Agree somewhat,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Disagree somewhat, (5) Disagree strongly
	코딩	다음과 같이 변형. (1) Disagree strongly, (2) Disagree somewhat, (3) Neither agree nor

		disagree, (4) Agree somewhat, (5) Agree strongly
불법 이민 호감도	문항	V162313 (ILLEGAL IMMIGRANTS)
	질문	How would you rate: Illegal immigrants TYPE THE NUMBER.
	응답	0~100
	코딩	다음과 같이 변형. (1) 매우 호감(80~100), (2) 호감(60~80), (3) 보통(40~60), (4) 비호감(20~40), (5) 매우 비호감(0~20)
민주당 지지자	문항	V161019 (Party of registration)
	질문	What political party are you registered with, if any?
	응답	(1) Democratic party, (2) Republican party, (4) None or 'independent', (5) Other SPECIFY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Democratic party, (0) 그 외.
공화당 지지자	문항	V161019 (Party of registration)
	질문	What political party are you registered with, if any?
	응답	(1) Democratic party, (2) Republican party, (4) None or 'independent', (5) Other SPECIFY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Republican party, (0) 그 외.
이념 성향	문항	V161126 (7pt scale Liberal conservative self-placement)
	질문	Where would you place yourself on this scale, or haven't you thought much about this?
	응답	(1) Extremely liberal, (2) Liberal, (3) Slightly liberal, (4) Moderate, middle of the road, (5) Slightly conservative, (6) Conservative, (7)

		Extremely conservative
	코딩	응답 그대로 사용.
현 경제 평가	문항	V161110 (R how much better worse off than 1 year ago)
	질문	Would you say that [you /you and your family living here] are [much better off financially, somewhat better off, about the same, somewhat worse off, or much worse off / much worse off financially, somewhat worse off, about the same, somewhat better off, or much better off] than you were a year ago?
	응답	(1) Much better of, (2) Somewhat better of, (3) About the same, (4) Somewhat worse of, (5) Much worse of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Much worse of, (2) Somewhat worse of, (3) About the same, (4) Somewhat better of, (5) Much better of
교육수준	문항	V165511 (R education)
	질문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school you have completed?
	응답	(1) LESS THAN HIGH SCHOOL, (2) HIGH SCHOOL, (3) MORE THAN HIGH SCHOOL
	코딩	응답 그대로 사용.
여성	문항	V161002 (Is R male or female)
	질문	IF MODE OF IW IS FACE-TO-FACE: IS THE RESPONDENT MALE OR FEMALE?
	응답	(1) Male, (2) Female
	코딩	(1) Female - 여성, (0) Male

유색인종	문항	V161310x (R self-identified race)
	질문	I am going to read you a list of five race categories. Please choose one or more races that you consider yourself to be: -white, -black or African-American,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Asian, or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 PROBE FOR RACE IF R SAYS HISPANIC OR A HISPANIC ORIGIN ENTER ALL THAT APPLY For Web administration,the question txt was: Please choose one or more races that you consider yourself to be (Mark all that apply).
	응답	(1) White, non-Hispanic, (2) Black, non-Hispanic, (3) Asian,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r, non-Hispanic, (4) Native American or Alaska Native, non-Hispanic, (5) Hispanic (6) Other non-Hispanic inclmultiple races <WEB: blank 'Other' counted as a race>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유색인종(2,3,4,5,6 문항), (0) 백인(1 문항)
연령	문항	V161267x (Respondent age group)
	질문	(Respondent age group)
	응답	(1) Age group 18-20, (2) Age group 21-24, (3) Age group 25-29, (4) Age group 30-34, (5) Age group 35-39, (6) Age group 40-44,

		(7) Age group 45-49, (8) Age group 50-54, (9) Age group 55-59, (10) Age group 60-64, (11) Age group 65-69, (12) Age group 70-74, (13) Age group 75 or older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그리고 그 이상
정치관심도	문항	V161003 (How often does R pay attn to politics and elections)
	질문	How often do you pay attention to what's going on in government and politics? [Always, most of the time, about half the time, some of the time, or never / Never, some of the time, about half the time, most of the time, or always]?
	응답	(1) Always, (2) Most of the time, (3) About half the time, (4) Some of the time, (5) Never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Never, (2) Some of the time, (3) About half the time, (4) Most of the time, (5) Always
권위주의 성향	문항	V162250 (Important for R to hold strong opinions)
	질문	(Thinking about yourself, please indicate whether or not the statement is characteristic of you or what you believe:) 'It is very important to me to hold strong opinions'
	응답	(1) Extremely uncharacteristic of me, (2) Somewhat uncharacteristic of me,

		(3) Uncertain, (4) Somewhat characteristic of me, (5) Extremely characteristic of me
	코딩	응답 그대로 사용.
소득수준	문항	V161361x (Pre income summary)
	질문	Pre income summary
	응답	0 ~ 250,000 or more
	코딩	다음으로 변형. (1) \$5000이하 ~ \$22,499, (2) \$22,500 ~ \$49,999, (3) \$50,000 ~ \$89,999, (4) \$90,000 ~ \$250,000 또는 그 이상

2. 표 목 차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

<표 2>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표 3>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민주당 지지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항

<표 4>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유권자 트럼프 투표

선택에 미친 요인 - 유색인종 유권자와 반이민 감정과의 상호작용항

3. 그림 목 차

- [그림 1]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1.1.~2016.4.30.)
- [그림 2]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5.1.~2016.8.31.)
- [그림 3] ‘불법 체류’ 주제 검색어 탐색 결과(2016.9.1.~2016.11.8.)
- [그림 4]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긴 이슈와 투표 참여에 관한 그래프
- [그림 5] <표 2>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오즈비 그래프
- [그림 6]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 [그림 7]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민주당 지지자에 따른 예측확률
- [그림 8] 불법 이민자에 대한 위협감과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 [그림 9]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호감도와 유색인종 유권자의 예측확률

ABSTRACT

Beyond Partisanship: Anti-Immigration Issues and Voting Behavior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Jihyun Kim
Department Political Diplomac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voters'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s Trump's anti-immigration policies on their vote choice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vote choices based on anti-immigration issues and negative sentiments towards illegal immigra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preference for Trump, the Republican candidate. The likelihood of voting for Trump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voters who perceived immigration as a personal threat and felt negative sentiments towards illegal immigrants. Secondly, Democratic identifiers who considered anti-immigration issues important or held negative perceptions of illegal immigrants tended to choose Trump. Moreover, voters from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who considered the immigration issue important or held negative perceptions of illegal immigrants also tended to choose Trump. That is, the growing concern over illegal immigration in the U.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rump's successful election campaign, influenced by his strict anti-immigration polic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partisanship played a role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salience of immigration and the rise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how voters made their decisions.